

논 문 개 요

선진국에서는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시대로 보고 예술교육, 즉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그동안의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경쟁구도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미술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잘못된 교육 풍토는 우리 청소년들을 가치관의 혼미와 갈등 속에서 방황하게 하고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고 있으며 위험수위를 넘어선 청소년 폭력 등 수많은 부작용 청소년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미성숙의 시기로, 이 시기의 미술교육은 인간 내면의 자유로운 표출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및 정서의 문제와 직결되며 가장 효율적으로 감성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단순히 감성교육이 도달점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 인격을 위한 기초능력의 배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감성함양을 통한 전인교육에 근본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극단적이고 불안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온순하게 정화할 수 있는 미술교육은 학교에만 한정된 교육이 아닌 미술관교육으로 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감성계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미술관교육의 현실은 성인과 아동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미술관에서 전시작품이 주는 생생한 감동과 직접 체험하며 친근감 있게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을 청소년의 미술문화 이해를 돕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술관이 청소년들에게 대중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미술관 측의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미술관에서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미적안목의 육성과 창의성 계발, 조형능력신장, 정서 함양 등 다양한 미술관 문화를 접함으로써 다방면으로 감성에 자극받아 미래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과, 청소년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이 시기 청소년의 감성 계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미술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미술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미술관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미술관교육을 통한 청소년 감성발달의 과제 및 대안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및 인지적인 특성에 대한 발달적 특성의 고찰이 필요하며, 감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감성교육의 이해를 통해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과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미적 정서함양과 창의성 계발이라는 미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아울러 미술관교육의 활성화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동과 성인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의 독자성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의 미적 감수성을 자

극하는데 효과적인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가 아닌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담당자의 전문 인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셋째,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한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술 이해, 미술 감상, 미술 표현, 미술 비평, 미술사 등 통합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미술관 안내 방법을 개선하고 시청각자료와 교육 기자재와 같은 매체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미술가 일일교사 초청, 지역 미술문화 공간 활용 등 미술관교육의 다양한 응용을 통해 수도권에만 치중되어 있는 미술관교육을 지역 문화와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체적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이 미술에 대해 친근감과 흥미를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감성계발을 하도록 하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방법, 전시매체, 현대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청소년 감성발달을 위한 과제를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술관교육이 논의되고 계획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미술관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
| (1) 연구 내용 | 3 |
| (2) 연구 방법 | 4 |
| II.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 6 |
| 1. 청소년기의 의의 | 6 |
| (1) 청소년기의 정의 | 6 |
| (2) 청소년기의 구분 | 8 |
| 2.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특성 | 10 |
| (1) 사회적 특성 | 11 |
| (2) 심리적 특성 | 13 |
| 3.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 | 20 |
| III. 청소년과 감성교육 | 24 |
| 1. 감성의 개념 | 24 |
| 2. 감성교육의 영향 | 28 |
| 3. 청소년기 감성교육의 필요성 | 30 |
| (1) 청소년의 욕구불만과 감성 | 30 |
| (2) 청소년기 정서장애 | 31 |
| (3)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건강 | 32 |

| | |
|--|------------|
| IV. 청소년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 35 |
| 1. 미술관교육의 개념 및 기능 | 35 |
| (1) 미술관의 이해 | 35 |
| (2) 미술관교육의 개념 | 37 |
| (3) 미술관교육의 기능 | 38 |
| 2. 미술관교육의 목적 및 중요성 | 39 |
| 3. 청소년 미술교육과 미술관교육 | 43 |
| (1) 현행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 44 |
| (2) 학교미술교육의 대안으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 45 |
| 4.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 48 |
| (1) 미술관교육과 청소년 감성과의 관련성 | 48 |
| (2) 감성교육으로서의 미술관교육 | 51 |
| | |
| V.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 55 |
| 1.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 55 |
| (1)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례 | 55 |
| (2) 미술관교육 전문가의 기획과 역할 | 82 |
| (3)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방법 | 84 |
| 2.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및 문제점 | 88 |
| 3. 미술관교육을 통한 청소년 감성계발의 과제 | 100 |
| | |
| VI. 결 론 | 103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 1>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 21 |
| <표 - 2> 감상교육의 목표 (제 7차 교육과정) | 42 |
| <표 - 3>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 구분 (문화감성 활동 영역) | 50 |
| <표 - 4>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 조사표 (지역별실태) | 51 |
| <표 - 5>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 조사표 (남녀별실태) | 52 |
| <표 - 6>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했을 때의 정서 조사 | 53 |
| <표 - 7>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탐방 프로그램 | 60 |
| <표 - 8>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학교연계프로그램 | 61 |
| <표 - 9> 미술영상자료 2008년도 11월 편성표 | 62 |
| <표 - 10> 2008년도 찾아가는 미술관 일정표 | 63 |
| <표 - 11> 경기도 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 66 |
| <표 - 12> 서울시립미술관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 68 |
| <표 - 13> 삼성미술관(Leeum)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프로그램 | 70 |
| <표 - 14> 아트선재센터 청소년을 위한 단체전시 관람프로그램 | 72 |
| <표 - 15> 모란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모란미술관학교 프로그램 | 75 |
| <표 - 16> 모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흙 놀이' 도예교실) | 75 |
| <표 - 17> 영은미술관 미술아카데미 프로그램 | 78 |
| <표 - 18> 나만의 미니화실 프로그램 내용 | 78 |
| <표 - 19> 환기미술관 전시연계프로그램 | 81 |
| <표 - 20>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 89 |
| <표 - 21> 모란미술관학교 15회 프로그램 주제 | 92 |

| | |
|---|----|
| <표 - 22> 국내 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 95 |
| <표 - 23> 국·공립 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 96 |
| <표 - 24> 국내미술관과 외국미술관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 98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미술관과 학교교육의 상호성 | 42 |
| <그림- 2> 미술관 조직표 | 82 |
| <그림 - 3> ‘찾아가는 미술관’ 2008 대전 카이스트전 설치 장면 | 91 |
| <그림 - 4> 모란미술관학교 입교식과 제작활동 | 93 |
| <그림 - 5> 영은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작물 (유리공예, 천연비누, 천연염색, 도예체험) | 94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서 문화결핍의 현상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감정적인 위축과 과잉이 맞물려 풍부한 감정표현이 솟구침과 더불어 냉정한 사실의 진술도 튀어나오는 냉철한 이성과 격동성이 혼합되는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주 모순된 행동들을 보여주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시기는 정신적인 미성숙의 시기로서 완전함에 대한 동경의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고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청소년의 발달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른 어떤 발달 단계보다 개체의 양면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어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사회 질서와 전통을 무시하고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적대적인 모습과 모험적이고 창조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발달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감성지수(Emotion Quotient: EQ), 감성지능(Emotion Intelligence: EI), 정서지능 등 감성과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IQ가 아닌 다른 요인의 많은 부분이 감성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지적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던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간성 회복과 인간 중심의 형태로서, 감성 능력의 발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부족과 감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과는 미술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미술교육은 인간 내면의 자유로운 표출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및 정서의 문제와 직결되며 가장 효율적으로 감성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술교육은 단순히 감성교육의 도달점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 인격을 위한 기초능력의 배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감성함양을 통한 전인교육에 도달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세기가 획일적인 사고에 의한 주지교과중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예술과 정보가 강조되며 개인의 유동성과 창의성을 통한 가장 자기다운 표현의 발현과 정신적 성장에 관심이 모이는 시대이다. 한마디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서, 미술이 시대의 주역으로 예견되는데, 미술이 문화시대의 중심에서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술교육은 일신해야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감성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감수성과 창의성은 물론 올바른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초기의 묘사나 재현을 강조하는 기능적 표현중심 교육이었고 1950년대 중반에 창의성 미술교육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정착되는 듯하다가 1990년 중반 이후에는 미적 체험과 감상을 위주로 하는 이해중심 미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미술관교육은 이해중심 미술교육사조의 강조와 함께 더불어 학교미술교육에서 청소년들의 감성계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데 큰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관에서도 성인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지고 있는 미술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나 다양성에서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며 상대적으로 청소년 미술관교육에서는 기회의 폭이 좁은 실정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신속히 발전 되어야 한다. 미술관에서 전시작품이 주는 생생한 감동과 직접 체험하며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을 청소년의 미술문화 이해를 돕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술관에서 청소년의 감성계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청소년 미술관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술관교육을 통한 청소년 감성발달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및 인지적인 특성에 대한 발달적 특성의 고찰이 필요하며, 감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감성교육의 이해를 통해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과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미술관교육의 교육적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감성계발을 통한 교육의 미술적 접근을 조명해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지금까지 인간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IQ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교육 전반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감성지능이 개념화하기 시작하여 모든 교육의 기초를 감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술교육은 인간의 정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감성지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술 문화를 이

루어 나가고 미래의 미술관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은 미술관 교육을 통하여 미술관 문화와 접촉시켜 올바른 미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취지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성교육과의 연계성을 살펴본 후, 미술관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미술과의 친근감의 도모를 통해 감성계발을 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뿐 아닌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인 청소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 2) 청소년의 정의 및 의식구조를 알아보고, 청소년기에 겪는 몇 가지의 부정적응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감성교육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청소년 감성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해 본다.
- 3) 청소년의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미술관을 통한 청소년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미술관교육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 4)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통해 현실을 점검해보고, 미술관교육을 통한 청소년 감성발달의 과제를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감성 교육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논문과 관련, 우리나라 미술관교육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등 문헌연구,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기의 정의 및 의식구조와, 감성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물을 참고한다.
- 2) 우리나라 미술관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각종 문헌 조사와 함께, 미술관에서 발행되는 각종 안내 자료, 인터넷을 통한 검색 자료를 참고로 한다.
- 3)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중 ·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청소년기 미술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중등 미술 교육과정을 참고로 문헌 연구를 한다.

Ⅱ.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이 장에서는 청소년기의 정의 및 구분을 통해 청소년기의 설정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적 접근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인지적 특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한다.

1. 청소년기의 의의

(1) 청소년기의 정의

초창기 인간 발달의 연구는 청소년기 보다는 성인과 아동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인간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를 라틴어 *pubertas*(꽃피우다)에 비유하여 사춘기(*puberty*)라 하였다. 사춘기는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사춘기를 포함한 전체적 변화의 시기를 라틴어 *adolescere*에 비유하여 청소년기를 *adolescence*라 하였다. 이 *adolescence*라는 말은 ‘성숙하다’ 또는 ‘자라나다’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adolescere*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어원을 지닌 청소년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여가는 중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확히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성장의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장은 점진적이고 불명확하다. 즉,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이 나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과정의 기간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다

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채 소년에서 성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성장해서 종국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그(A.Sieg)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성인의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성인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작하여, 그가 속한 사회에 의하여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힘과 사회적 지위가 실제로 주어졌을 때 종료된다.”고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¹⁾

근대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프랑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이다. 그는 그의 저서 <에밀(Emile)>에서 ‘에밀(Emile)’이라는 이름의 사내아이를 통해 그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는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15-20세의 시기’로 기술하고 있다.²⁾

또한 루소는 <에밀(Emile)>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기를 자기만의 가치와 장점을 정립하여 재탄생(rebirth) 혹은 제2의 탄생(the second birth)을 경험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어린이에서 어른의 상태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행동이 불안정하여 질풍노도시대(Storm and stress period)라든가 부정기(Negative period)」라고 이르기도 한다.³⁾

청소년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역할을 준비하는 예비적 과정이다. 청소년기는 「소년시절에 생각하였던

1) 노용오, 『청소년 문화론』, 도서출판 구상, 2005, pp. 13 ~14.

2) 장 자크 루소.. 민희식(역), 『에밀』, 육문사, 1992, p. 25.

3) 김순일, 「청소년의 이해와 생활지도」, 공주대학교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p. 123.

자기와는 소원감을 느끼는 육체적, 정서적 변화의 시기이며 또한 삶에 대한 탐색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사랑과 미에 대한 눈뜸이 강렬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고독과 절망으로 마음의 혼란을 체험하기도 한다. 환상의 영역에서 마음대로 방황하고 이상을 추구하지만 또한 세상과 자신에 대한 단절감과 혐오에 빠져들기도 하는 시기이다.⁴⁾

(2) 청소년기의 구분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방식은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지표와 더불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교육적, 법률적 차원의 발달 및 성숙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구분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와 구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의 사이에 낀 연령 세대로서,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고 청소년기를 아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청소년이란 말과 청소년기가 별도로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아동과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즉 아동~청소년기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와 더불어 취업과 경제적 독립 및 결혼의 시기가 늦추어짐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아동과 어른간의 새로운 중간 세대를 설정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⁵⁾

1)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

전통적으로 어느 집단에서나 삶의 전 과정에서 출생, 성인식, 혼인, 그리고 사망의 시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통과의례(rite of passage)를 치렀다. 이러한 통과의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4) 정우식, 『청소년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삼성출판사, 1986, p. 30.

5) 노용오, 전제서, pp. 15~17.

성인식(사춘기)에서부터 혼인에 이르는 시기를 청소년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기도 한다. 특히 동양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게 되면 어른 취급을 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사회나 집단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청소년기가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2) 취학 연령에 따른 구분

취학 연령 혹은 학력에 따라 청소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교육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초등학교 취학자부터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혹은 중학교~고등학교 취학자로 한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처럼 학력(學歷) 혹은 취학 연령 기준으로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은 청소년을 아주 용이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반면에 취학자가 아닌 근로 청소년을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 만학의 학생이나 조기 취학자를 또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

3)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른 구분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보통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11~12세경부터인데, 여자의 경우 10세경부터, 남자의 경우 12세경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연령에 기초하여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개개인의 개인차로 인해 그 구분이 부정확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개인에 따라 사춘기의 시작 시기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양상 또한 일정치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4) 법률적인 구분

입법취지에 따라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신체적·심리적 변화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간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회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사춘기를 지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면 사춘기의 개념을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개념에 따라 사춘기를 지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도 용이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 차이는 무시되지만 사회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구분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1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킬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특성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이 시기에 있는 자로써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 즉,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구체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가? 우선 사회·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보자.

(1) 사회적 특성

1) 성적 변화와 성격 및 사회성과의 관계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 성적인 변화는 청소년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제 2차적 성 특징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격 및 사회성의 발달에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곧 여러 가지 제2차적 성 특징이 된다. 사춘기의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변화로써 나타나는 성 특징에 대해 불만이나 당혹감을 느끼며 자기의 성에 부정적, 혐오적 태도를 취한다면 훗날 이성관계나 결혼에 대해서도 성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청소년 보다는 좋지 않은 태도를 갖기 쉽다. 더구나 자기 성과 이성 및 이와 관련된 삶의 전반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이 시기의 성적 조숙은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성적으로 조숙한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또래보다 성숙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성숙에 긍지를 갖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어른스런 대우를 받는다.

셋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변화는 체격과 외모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도성, 열등감, 대인관계의 기피현상 등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보다 빨리 성장하는 청소년에겐 지도성이 기대되고, 이것이 결국 우월감, 지도자적 기술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반대의 청소년

년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보다 소극적이 되기 쉽다. 여드름, 수염, 변성 등은 외모에 불만을 가지는 원인이 되며, 대인 접촉을 기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성격이 소극적, 내향적이 되기 쉽고 사회적 접촉기술이 발달될 기회가 적어진다.

넷째, 이 시기의 성적 변화는 이 시기의 발달과업의 성취와 관계된다. 성적인 변화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의 재체제화로 자기 조절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성적 변화가 발달과업의 성취시기 및 기회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달과업의 성취와 이 성취에 영향을 받아 사회성 및 성격발달이 이루어진다.

2)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과업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자기 조절과 동료와의 동일시, 자아의 재체제화, 사회적 민감 등이 될 것이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자기조절의 발달과업이 요구된다.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적 균형이 어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과 자세에 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신체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정서, 감정의 고조화를 막아 스스로 통제, 조절하는 의지력을 키워야한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동료와의 동일시와 자아의 재체제화를 발달과업으로 한다. 아동기의 특징을 벗어나면서 청소년다운 자아의식을 갖추고 더 이상 아동이 아니므로 이에 걸 맞는 언어, 행동, 태도 및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면서 아동기의 자아중심적 동기와 사춘기에 친구들과의 유대를 갖고 싶은 사회적 동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적응의 기초가 된다.

셋째, 사회적 흥미의 활동은 사회적 민감성을 키우는 발달과업이 된다. 몽상이나 백일몽에만 빠지지 않도록 동료집단과 그들과의 사회생활에 관심을 확장시켜야 한다. 흔히 청소년기에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것에 민감하다.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타인의 기대요구를 이해하고, 호감을 얻는 의상, 태도 등에 예민해진다. 이러한 사회적 민감성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에만 집착하지 않고 또래문화, 또래의 요구에 맞추어 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학습이 된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집단정체감(group identity)⁶⁾을 갖고자 한다. 이런 요구는 곧 동료집단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그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얻으려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동료의 관심과 주위에 예민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발전에 유익한 기회로 활용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특이한 문화를 형성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2) 심리적 특성

1) 정서변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정서변화를 요약한 표현이다. 이 시기에는 격렬한 환희, 심한 수치감과 열등감, 때로는 자신을 영웅

6) 집단정체감(group identity) :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신념, 사고방식 등을 공유하면서 또래 문화를 형성함. 이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그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얻으려 하는데서 생김. 노용오, 『청소년 심리』, 도서출판 구상, 2005, p. 77.

시하는 자기도취, 심한 우울증의 정서에 자주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늘 불안스럽고 위협스러우면서 자주 화를 내고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불안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데서 생긴다. 즉 이런 급격한 변화가 조화되지 못하면서 자기무능력, 몸맵시, 행동상의 불만과 결함, 요구의 불만족, 불확실한 장래, 대인관계 등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곤 한다. 불안과 분노는 상관이 깊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요구가 방해받게 되면 나타나는 정서인 분노가 매우 심하다.

청소년기에는 공포에 변화가 온다. 아동기의 공포보다 더 확대된 공포로서, 일반적 공포와 사회적 공포가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일반적 공포는 죽음, 질병, 시험과 학업부진, 성적 무능력, 실직, 결혼에 대한 공포이다. 사회적 공포는 우울한 사람, 빈정대거나 조롱하는 사람, 체격이 거대한 사람, 잔인한 사람, 오만한 사람, 총명한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로서 인간관계, 즉 사람 만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체발달을 중심으로 한 성적 변화가 급격한 것에 대한 적응이 서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에게 한정되었던 인간관계가 이성이나 일반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수반되는 관심 및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을 겪기 때문이다.

2) 우울증과 반항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신과 가정, 학교와 사회 등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심지어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출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현 존재의 뿌리로서 과거와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을 설정하게 되지만, 현재와 이상간의 모순이 존재함을 알고 번민에 빠진다.

청소년기에는 보통 우울증에 잘 빠진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동기까지는 양자로 입양되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명랑했던 아동도 청소년이 되면 친부모를 찾고자 애쓰게 되고, 따라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자신의 현재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자신이 원하는 이상에 이를 것인가에 사고를 집중 시키게 되어 불안이 높아진다.

청소년기에는 이상과 현실간의 모순 때문에 더욱 이상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불만스러운 현실에 반항적이 된다. 부모와 사회에 대한 반항이 곧 이런 이유에서 나타난다. 이상을 개념화하는 청소년의 능력도 부족하며 이상을 실천하는 방법도 서툴게 된다. 따라서 능력과 실천방법간의 거리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요구에 과도하게 단호할 수도 있고 이 단호함이 반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점차 자기의 이성과 현실간의 적절한 행동적 균형을 취할 줄 알게 되어 점차 관용스러워진다.

3) 자기중심성과 자기우화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사고를 대상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성적이 되고 자기분석과 자기비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자기중심성(egocentrism)으로 나타난다. 자기중심성이란 청소년들이 흔히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과 타인이 지향하는 대상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사고가 지향하는 대상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착각이다. 흔히 어떤 논쟁에 있어서 자기 생각

이나 아이디어를 몹시 고집하는 경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논쟁을 시작하여 결말지으려는 주장도 지적 자기중심성(intellectual egocentrism)의 예가 된다. 흔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나 행동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및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리라고 믿는데, 이것 역시 자기중심성의 예가 된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우화(personal fable)⁷⁾와 상상적 관중(imaginary audience)⁸⁾의 특징을 보인다. 이 역시 자기중심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 자신을 무대 위에 선 것으로 생각하며 타인들을 모두 상상적 관객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곧 자기를 우상화 하는 경향을 동반하게 된다.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감정이 특이하고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우화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일기를 열심히 쓴다. 일기에 자신의 사고, 경험, 애착과 좌절을 기록해 두면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을 기성세대나 타인이 자신만큼 중요하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반항도 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이런 자기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먼저 상상적

7) 자기우화(personal fable) :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정, 사랑 등은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청년기 특유의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자아관념을 자기우화라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자기우화는 자신감과 위안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파괴적 행동을 범하여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스스로 이런 사고의 특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우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종종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구경하는 관중이라고 상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우화는 청년들에게 자신감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주나 성교, 오토바이 폭주 등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도 그 부정적인 결과는 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의 몫은 아닐 것이라는 위험천만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옥분, 『발달심리학』, 학지사, 2004, pp. 108~109.

8) 상상적 관중(imaginary audience) : 청소년기의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생각되면 작은 비난에도 청년들은 심한 분노를 보인다. 청소년기의 상상적 관중 의식 정도는 상상적 관중 척도를 이용하여 진단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가장 높은 상상적 관중 의식이 나타나며,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상상적 관중은 시선 끌기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온다. 정옥분, 상계서, p. 103.

관중을 설정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관심과 주위를 의식한 행동을 하고 옷차림을 한다. 그리고 또 동료집단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동료의 반응에 신경이 예민하다. 따라서 동료의 관심이나 반응을 얻기 위하여 이전의 경험이나 흥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도 한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가 길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신의 흥미에 의해 친구나 사람을 택하므로 자신이 생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곧 실망하여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성도 청소년 후기에는 점차 사라지고 자신의 개인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료집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분위만이 아닌 대인관계도 가질 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비로소 상호흥미를 존중한 안정된 상호관계를 확립시켜간다.

청소년후기에는 가족 및 사회에 대해서 반항적 감정을 완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의 어떤 일에 종사하여 생산적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을 끝 이상과 현실간의 가교적 역할로 생각하게 된다. 생산적 직업으로서 사고와 행동을 결합시키고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다. 즉 생산적인 일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개인적 고립에서 사회적 통합으로 흡수되어 가고 성인기로 진입하게 된다.

4) 이성의식의 변화

유아기에는 남녀 유아가 서로 잘 어울려 놀지만 성적 저항기(age of sexantagonism)인 아동기에는 남녀가 서로 꺼리고 잘 싸운다. 그래서 남아는 여아를 잘 울리곤 한다. 그러다가 성적 혐오기(age of aversion)가 온다. 성적 혐오기는 청소년기 초기로서 이성과 함께 놀거나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서로 얽보고 미워하며, 일마다 서로 반대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불쾌

하게 생각하는데, 대체로 11~13세경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 지속된다.

그 다음에 애착기(crush)가 온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성적 변화에 대한 당혹과 불쾌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혐오기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애착의 대상을 추구하는 시기가 된다. 애착의 대상은 주로 존경하는 선생님 또는 동성의 연장자가 되기도 하다가, 점차 이성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되어 동성애착에서 이성애착으로 변화된다. 이 시기는 주로 15~17세경으로서 애착대상을 발견하면 그에게 접근하고 주의를 끌려고 하며, 그의 언행을 모방한다. 대체로 애착대상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가진 동성 또는 이성의 연장자가 되는데,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이다.

애착기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이성애 단계가 온다. 즉 16~17세경 이후로 영웅 숭배와 비슷한 연상의 이성 사모, 존경이면서도 애정적 성격이 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연상의 선생님, 배우, 가수, 텔런트, 군인, 상급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송아지 사랑(calf love)이라 한다. 송아지사랑 다음에 강아지사랑(puppy love)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제 또래와 어울려 놀듯이 또래의 이성, 즉 덜 세련되어 서툴고 어색하고 수줍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이성에게 신선한 호감을 느끼며, 그룹미팅이나 데이트 등 집단적 과외활동으로 이성을 만나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romantic love)라는 1대 1의 이성 관계를 추구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성의 인격과 접하며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서충족으로 인한 독점 및 영구한 애정유지를 추구하려 든다. 연애는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 즉 정신적 결합에서 만족을 얻는 사랑에 몰두하다가 점차 신체적 접촉도 추구하는 성욕적 사랑(erotic love)으로 발전한다.

5) 독립성 추구하고 양가적 감정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또한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독립적 존재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근거하여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다.

청소년은 성인으로 대우받으면 긍지를 느끼면서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자기 능력과 역할을 시험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싶고, 자기에 의한 자기가 되고 싶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기계획에 의하여 생활하고 싶어 한다. 자기 방, 자기 소유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독립성의 추구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독립성 추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보다 쉽게 또는 보다 어렵게 성취될 수가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명령과 순종의 관계일 때 보다 자유방임적일 때 그리고 민주적 관계일 때 청소년의 독립성이 잘 발달된다. 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고 능력과 역할을 시험해 보도록 허용하여, 스스로 통제하고 성숙된 판단을 하도록 격려하면 자율성이 발달되어 책임감과 자기신뢰감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기의 독립성은 청소년기에만 형성,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배변훈련기부터 계속적으로 발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독립성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란 정서적 특징이 보인다. 즉 새로운 특권을 즐기려 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부모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힘든 판단과 결정도 자기가 내려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따라서 독립이란 불안스럽고 자신 없는 모험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스러우며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의존하

려 하고, 권리와 이익이 따르는 경우에는 독립하고 싶어 하는 양가적 감정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만 모든 것을 부모가 처리해 주던 아동기를 그리워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어느 때는 아이 같고, 어느 때는 성인 같이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 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과 성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계속 대립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미래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안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당황스럽고 불확실한 현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

과거에는 인지능력이 늘 일정하다고 믿었으나 현재는 개인의 인지능력이 일생 동안 상당히 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함께 지적,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분명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⁹⁾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은 지식의 보다 나은 조직, 배열, 분석, 분류를 통해서 학습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인지 발달의 중심은 언어, 문제해결, 기억능력발달, 이성적 사고 등이 해당된다.

인지 발달을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피아제(Piaget)는 개인이 일생동안 인지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 중요한 질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 이를 <표 - 1>과 같이 4단계로 정리하였다.

9)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2004, p. 117.

<표 - 1>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 단 계 | 연 령 | 특 징 |
|---------|------------------------|--|
| 감각운동기 | 0 - 2 세 | 환경과 작용하기 위해 자신의 심체 감각, 지각 및 신체활동에 의존한다. |
| 전 조작기 | 2 - 6 , 7세 | 언어와 같은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면서 사고능력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아 중심적이며 전 조작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결여된다. |
| 구체적 조작기 | 6 , 7 - 11 , 12세 |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에 국한된다. 보존개념을 획득하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분류하고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
| 형식적 조작기 | 12세 이후 |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상대적, 다차원적 사고도 가능하다. |

현실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이해가 가능했던 아동기와 달리,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선 청소년들은 또 다른 인지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부분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형식적(formal)인 부분으로의 지적능력이 가능한 이 시기는 몇 가지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¹⁰⁾

첫째,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다. 청소년기에는 단순히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들은 관습이나 기존의 가치를 나름대로 비판하고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상계서, pp. 124~126.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만 복종한다. Role Model이던 부모의 언행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녀가 깨닫기 시작한다. 기성세대의 이해 타산적이며 인습적인 것에 반기를 든다. 하지만, 이 시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간층이므로 이와 같은 사리판단은 어떤 때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다. 이 시기의 행동은 논리적인 결론에 의하기 보다는 충동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때가 많다. 이성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며 자기 뜻을 우기는 경우가 있다.

둘째,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추상이란 것은 몇 개의 소재로부터 거기에 공통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약하며 일면을 전체로 속단하는 경우가 있다. 인지능력의 진보로 ‘정의와 정당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현실에 모순을 느끼고 이상을 추구하며 정서적 불안으로 충동적,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셋째, 사색과 명상에 잘 잠긴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과 의견,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의 역할을 발달시키고 있다. 이 시기의 사색은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지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의혹을 품고 자신을 불신하게 되며, 허무주의적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청소년 개인의 인지발달 및 인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의 특성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많다. 부모는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넓은 아량과 옳

고 그림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풍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겠으며, 또한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Ⅲ. 청소년과 감성교육

전 장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들의 감정의 기복이 강하고, 불안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기분적이고, 수줍어하고, 민감하고, 열중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리적·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혼동,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가치체제의 변화 등이 그들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크게 경험하며, 이것은 곧 그들의 감성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감성의 불안정은 청소년의 학교학습과 사회적응, 인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감성은 자아체험을 통해 각종 생활감정(life feeling)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¹¹⁾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감성의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 감성발달을 위한 감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욕구불만과 정서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감성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해본다.

1. 감성의 개념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 지수(IQ)’보다 ‘감성(정서)지수(EQ)’가 더

11) 한국청소년개발원, 상계서, p. 243.

중요하다.” “IQ는 성공의 20%만 기여한다.”

1995년 10월, 미국의 주간지 및 일간지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한 다니엘 골만(Daniel Golman)이 지은 ‘감성 지능(EI : Emotional Intelligence, 1995)’이란 책의 주제이다. 이 기사는 삼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 타임스에서 행동 및 두뇌 과학 분야의 전문기자로 일한다.

원래 골만의 원저에는 ‘감성지능’을 ‘EI(Emotional Intelligence)’로 명기했으나 타임지에서 ‘IQ’와 대치되는 ‘EQ’로 표기하면서 EQ가 일반화 되었다. EQ란 감성(Emotional)지수(Quotient)를 말한다. 사실 감성 지수(EQ)는 현재 IQ처럼 측정하여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EI(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표현해야 옳다. 왜냐 하면 감성 지수 자체도 여러 지능 중 일부라고 보기 때문이다.¹²⁾

인간 사회에서 감성지능이 더 필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무관심한 분야였다. 현대 교육계는 지난 1백여 년 동안 수리·언어능력·창조적 추리 및 논리적 능력을 말해 주는 IQ위주의 교육에만 전념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머리만 똑똑한 학교의 우등생이 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 초 예일대 피터 셀로비(Peter Salovey)교수와 그의 동료인 뉴햄프셔 대학의 존 메이어(John Mayer)교수가 처음으로 감성 지능에 대한 공동 연구로 감성 지능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들은 감성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남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감정들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감성(E: Emotion)도 하나의 지능으로 IQ처럼 계발할 수 있다는 시도였다. 머리만 똑똑한 우등생보다 정서적인 우등생이 사회에서 더 성공한다

12)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도서출판 쉼마, 2005, p. 248.

는 논리였다.

이 용어는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할 줄 알고 나아가 보다 나은 정서와 사고에 접근하여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감성이라는 말은 18, 19세기 이른바 마음의 능력에 대한 심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감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①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 ② 자극 또는 자극의 변화에 대하여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능력, ③ 오성(悟性)과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표상(表象) 능력, 대상으로부터 촉발(觸發)되어 표상을 얻게 되는 수동적인 능력」¹³⁾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감성이라는 마음의 능력은 정의상 ‘감정, 또는 느낌’, 즉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의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이처럼 감성은 특정 느낌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감정의 능력’으로 통증이나 쾌감, 공포감 같은 특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뜻한다.¹⁴⁾ 그리고 정서는 어떤 대상에 의해 야기되거나 혹은 대상에 지향되어 일어나는 내적 감정이나 감각작용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감정, 정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감성, 정서, 감정이라는 말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쓴다. 이 말들은 아주 유사한 개념들이지만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다. 이들 개념들을 구분하자면, 정서란 적응하려는 태세가 강렬하고 심한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리적·신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감정이란 온화하고 온정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정서보다 덜 강렬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감성은 주로 철학에서 이성에 대비되는 말로 많이 쓰며 감정과 정서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

13)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86, p. 73.

14)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pp. 24~30.

다.¹⁵⁾ 따라서 정서와 감성을 구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혼용할 수도 있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논의해 온 감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¹⁶⁾ 한 관점은 전통적인 시각으로 감성은 정신활동의 방해요소이므로 감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른 관점은 감성을 인지활동과 후속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체계적인 반응이라는 해석으로 통제보다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stionary)에는 감성을 “정신(mind), 감정(feeling), 정열(passion)의 동요 또는 혼란스럽고 격렬하거나 흥분한 정신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사이몬 샤퍼(Simon Schaffer)는 감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스러운 반응,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영(Young)은 감성을 “사람을 매우 혼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감정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상반되는 것으로 보며, 감정이 이성의 작용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스티븐 리퍼(Steven Leeper)와 같은 학자는 감성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정의하였다. 감성은 우리의 행동을 자극하여 유발시키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또 조정하는 과정으로, 존 메이어(John Mayer)와 피터 셀로비(Peter Salovey)는 감성을 생리적, 인지적, 동기적 및 경험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잘 짜여진 체계적 반응으로 보았다. 이들의 견해와 맥을 함께하는 골만(Goleman)은 감성을 느낌(Feeling)과 이의 독특한 사고,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태, 행동 경향으로 정

15)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개서, p. 244.

16) 김경식, 「감성지능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개념적 연구」, 한양여자대학교 학술지, 2004, pp. 15~16.

의한다. 현대의 감성이론들도 후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성은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정신적 측면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우선 특정한 상황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생리적, 신체적 각성을 일으키게 되며, 나아가 특정행동 경향성을 일으키게 된다¹⁷⁾고 볼 수 있다.

2. 감성교육의 영향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지수(IQ)가 사회적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권에서 지성과 분리되어 억제와 통제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던 감성이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수용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한 IQ를 뛰어넘어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⁸⁾

이처럼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던 교육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함을 실감하면서 감성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감성(EQ)위주의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다.

EQ는 IQ와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위한 능력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EQ의 계발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⁹⁾ 우리가 지금

17) 조외제, 「중학생의 감성발달에 미술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 8.

18) 김정식, 전계서, pp. 23~24.

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인지적 능력만큼 감성적 능력이 중요하며 더욱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도 감성과 인성에 바탕을 둔 전인교육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인류에게 있어 감성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능력의 보고이며, 이러한 감성을 어떻게 계발하느냐는 문제는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아성취를 이루어가는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인의 대부분이 6·25 후 현대 교육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EQ교육보다는 IQ위주의 교육을 받아오면서 IQ위주의 교육은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Q교육 없이 IQ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학문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매사와 인간관계에 정이 없고 차갑게 되기 쉽다.²⁰⁾

이러한 IQ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생길 경우 시기와 질투심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전문적 지식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머리에 담아 두기만 하면 쓸모가 없다.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남에게 알려야 하는데,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필수이다. 인간관계의 윤희유 역할을 하는 것은 지능(IQ)이 아니라 감성(EQ)이다.

건강한 감성을 기반으로 한 감성교육의 영향은 지적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며, 인간을 보는 관점의 시각을 재정립 할 수 있고, 인성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요구에 의해 형성되어진 개념²¹⁾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와 가치가 매우 기대되며, 감성교육의 영향력은 극대화 될 것이다.

19) 최용환, 「미술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8.

20) 현용수, 전계서, p. 263.

21) 최용환, 전계서, p. 8.

3. 청소년기 감성교육의 필요성

(1) 청소년의 욕구불만과 감성

청소년은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욕구불만(frustration)의 연속이다. 이러한 욕구불만은 그들의 정서적 불만족과 불안을 가중시키며, 부정적이고 무미건조하며 반사회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인간의 요구는 자기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식욕과 수면욕 등이 포함된 유기적 욕구(organic needs)와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며, 안정감과 승인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로 대별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회적 욕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²²⁾ 이러한 욕구의 만족과 불만족, 성공과 실패 등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 또는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이나 실패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불만은 대부분 그들의 생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데,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원만치 못한 관계는 그들의 욕구불만의 주요소이다.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가정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이며,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 재혼 등의 결손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모의 이기적 또는 부정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헌신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은 가정에서보다 학교생활에서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

22)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계서, p. 254.

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압박과 대인관계의 혼동은 그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욕구불만의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의 외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에 강력한 자원이 라면 그것의 영향력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거 또는 개선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개인 내적인 신념 및 지각체제를 변화시키고 개인적 능력을 개선시킴으로서 욕구불만으로 인한 정서적 갈등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 정서장애

청소년기를 흔히 '심리적 격동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들은 신체발달이나 인지발달 그리고 정서발달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할기대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는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의존하는 어린 아이의 위치에서 한 몫을 하는 성인의 위치로 전환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들 세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 부적응 현상을 넘어서서 심각한 적응장애로 발전될 경우 그 장애와 피해는 치명적이 될 것이다. 즉, 대부분의 청

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불안정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성숙과 함께 좀 더 효과적인 적응방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사라짐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적응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 개인의 전 생애와 중요한 타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서장애는 그 자체가 반드시 심각한 심리장애 또는 적응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겠으나, 이를 청소년기에 의례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만도 없는 것이다.²³⁾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정서장애로는 불안과 공포, 강박개념, 우울 등이 있으며, 심각할 경우 정신분열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왜곡된 성격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건강

스트레스(stress)란 용어는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Hans Sely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나, 아직도 개념의 모호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으로서 그것의 속성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일종의 자극으로 보는 관점과 반응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인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²⁴⁾

첫째,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으로서 스트레스를 진단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

23) 임승권, 『정신위생』, 양서원, 1988, p. 86.

24) 한상철 외, 『인간이해와 교육』, 중앙적성출판사, 1995, pp. 171~172.

스의 의미와도 같다.

둘째,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어떤 반응 증후가 발생한다는 것은 동시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극 자체가 상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유기체가 이러한 위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곧 스트레스의 표현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개인의 능동적인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병원균만큼이나 직접적인 질병 유발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에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정서장애와 같은 생활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부유한 사람보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가난과 관련된 긴장은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도시와 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는 일상적인 긴장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혈압과 이와 관련된 질병(심장발작, 고혈압성, 심장조건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관 연구는 스트레스가 다양한 유형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두 현상 간에 일관성 있는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1년 동안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미국인의 수가 약 70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관상질환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삶의 긴장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할갈등과 발달상의 긴장 그리고 학업성적과 입시로 대표되는 경쟁적 생활구조는 그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짓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건강과 심리적 부적응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성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IV. 청소년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전장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들은 가장 의욕적이면서 동시에 정립되지 않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려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이들이 올바른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며, 주체성, 자주성, 창조성을 기르는 국가사회가 요청하는 조화로운 인격교육인 전인교육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지주의의 편향적 교육만으로는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는 없으며, 지적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소로서의 감성발달의 영역인 예술 교과목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병리현상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술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덕목을 찾아 지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정서적 안정과 인간성회복을 위해 문화예술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예술품이나 예술 공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미술관은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미술관교육을 통해 정서함양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미술관교육의 개념 및 기능

(1) 미술관의 이해

흔히 박물관을 분류할 때 과학 자료를 다루는 과학박물관, 역사 자료를 주로 다루는 역사박물관 그리고 미술 자료를 주로 다루는 미술박물관으로 나눈다. 그리고 박물관 중에서 미술박물관을 줄인 말이 바로 미술관이다. 따라서 미술관은 박물관의 한 종류인데 그럼에도 미술관이 박물관보다 친숙하지 않은 개

념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술관의 전시물들은 박물관과는 달리 순수 예술 작품이며 예술적 가치를 음미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술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국제미술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ICOM)는 1973년 개최된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미술관/박물관을 규정한 바 있다.

“인간과 자연의 발달상을 보여 주는 물질적인 증거를 연구, 전달, 감상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것을 수집, 보존하고 전시를 통해 소통시키는 비영리적이고 사회 봉사적인 기구를 미술관/박물관이라 한다.”²⁵⁾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살펴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별도로 정의한다.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⁶⁾

이처럼 미술관은 미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대중을 위해 전시하고 교육하는 사회 교육 기능을 가진 전문 박물관이며, 수장품과 기관 성격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기본 방향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초기의 미술관의 기능은 과거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을 수집, 보관, 전시하는 곳이라는 작품의 수장고의 기능을 핵심적인 활동으로 생각했다면 오늘의 미술관은 연구와 전시, 교육을 통한 학술 연구 기능과 사회적 교육 기능을 강조하며, 대중의 휴식처 역할까지 하는 대중 속의 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근래의 미술관은 인간과 인간 환경의 물리적인 유형의 증거를 보유하고 연구하여 전시라는 수단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모든 탐구시설의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일련의

25) 다니엘 지로디 앙리 뷔아페. 김혜경(역),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1997, p. 13.

26)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문화관광부, 1996, p. 6.

기능들은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강조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능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관의 수도 적고 미술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미술관은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통하여 더욱 중요하고 유익한 교육 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미술관교육의 개념

미술교육의 역사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미술의 기능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미술 교육이 발전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이해감상을 중시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창의력 향상에만 관심을 두었던 미술 교육에서 벗어나 이해 중심 미술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미술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인 DBAE(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²⁷⁾와 미적 교육, 다문화 미술 교육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새로운 미술 교육 방식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이 미술관이다. 미술관 교육이 부각되면서 각 미술관이 보여 주는 단순한 전시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미술 문화에 대한 질 높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교육 영역으로 눈을 돌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미술관 교육이란, ‘미술관’과 ‘교육’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합쳐지는 분야로 미술관이 갖는 고유한 속성과 교육의 기본성격이 결합된 것이다.

27) DBAE : 케티 미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미술관 교육자, 미술교사, 대학의 미술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을 실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중요한 미술교육 운동 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의 기본 신념은 미술교육의 전부로 생각되어져 온 만들거나 그리기 위주의 교육내용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시각예술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미술사(art history), 미술비평(art criticism), 미학(aesthetics), 미술창작(art production)의 네 분야가 통합된 이론이다. 김황기, 『DBAE: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2, pp. 11~12.

미술관교육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당 미술관이 소장품을 표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 전반을 포괄한 넓은 의미의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의 모든 활동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소장품전시, 전시 기획 교육프로그램, 특별행사 등 관람객이 미술관에 와서 접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관교육은 미술관, 교육, 미술이라는 주체적 요소인 세 가지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²⁸⁾로,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 미술작품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좁은 의미의 미술관 교육은 소장품과 전시, 그리고 미술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의 교육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미술관교육은 미술관 소장품을 토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미술관 교육으로 통한다.

따라서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을 교육적 기관으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교육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계획, 조직한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미술관교육의 기능

미술관교육은, 정규교육과 연계되는 점을 중시하는 시각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보다는 관람객으로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8) 미술관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미술관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 주체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미술관적 요소는 관람객이 미술관에서 특정 대상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적 요소는 미술관 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교수 방법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주체적 요소는 미술관 교육에 입할 때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진 다양한 부류의 관람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미술관교육의 기능을 정규교육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미술품을 통하여 자기 밖의 세계를 체험하고 재인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통한 표현력도 기를 수 있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학교 미술 수업이 형식적, 조직적인 것에 반해 미술관을 방문하여 생기는 배움은 비형식적이며 자유스럽다는 것을 느낀다. 수업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미술관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이 배움을 갖는다. 또한 그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이나 분야에 많은 시간과 내용들을 접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배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미술관교육은 대체로 미술관을 찾는 모든 계층과 연령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그들 나름대로 미술관의 전시작품에 대해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며 미술관은 이들에게 설명판, 리플렛, 강연회, 강좌, 오디오 가이드, 전시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 왔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미술관이 관람객과 ‘소통(communication)’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었다.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적 기능은, 작품을 통한 미술 감상과 작가의 조형 언어를 인식하게 해주는 미적 경험 및 작품을 통한 어제와 오늘의 미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술사,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체험이나 삶을 바탕을 한 작품의 사회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육을 말한다.

2. 미술관교육의 목적 및 중요성

미술관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잡한 기관이다. 미술관에 걸린 작품과 그 공간은 임의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의도

적이며 역사적이며 계획적으로 꾸며진 공간이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학생들 혹은 일반 관람객들, 그들의 경험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될 것이다.²⁹⁾

미술관은 있는 작품을 그대로 전시하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 신념, 필요 등에 따라 재구성 되는 공간으로 미술관의 교육은 예술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화예술 체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 현장으로서 문화의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뿐 아니라 교육적인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미술관에서의 교육을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술관 교육이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점과 미술작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관 교육의 목적은 미술전문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시를 자주 접하고 감상활동과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일반인들이 좀 더 가까워지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관은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모든 세대의 다양한 관람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각 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각자가 주체적인 자세에서 미술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실제의 미술작품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은 여러 성격의 관람객이 미술품을 중심으로 예술문화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미적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³⁰⁾

이렇듯 최근 들어 미술관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관람객의 관람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미술관의 전시유형도 변하고

29)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pp. 311~312.

30) 이윤정, 「미술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12.

있다. 그렇다면 미술관교육이 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로, 1970년대부터 미술교육에서 미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표현보다 이해와 감상을 중시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미술 이해 및 감상 교육과 관련하여 등장한 미술 교육학자는 아이스너³¹⁾인데, 창의력 향상에만 관심을 두었던 미술교육에서 이해 및 감상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술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해 및 감상교육은 미술사와 문화의 이해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각 시대마다 과거의 전통이 미술가들의 이념과 미적 가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미술작품은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로, 7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관 견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도 미술관에 있는 자료들이 참고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내용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활동으로 나뉜다. 이 중 감상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과 친구들의 작품을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품의 특징을 찾아보게 하며, 더 나아가 미술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활동이다.³²⁾

31) 아이스너 (Elliot W Eisner 1033~)를 시발적으로 최근 과도기적 미술교육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와 가장 밀착된 미술교육의 양식들이다. 첫째는 감상지도 내용 및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계적인 미술관, 박물관등이 그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미학자들이 통합적인 미적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사회중심미술 교육, 미술 요법, 보람 있는 여가를 위한 미술교육, 우뇌 계발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이 다문화 미술 교육 등의 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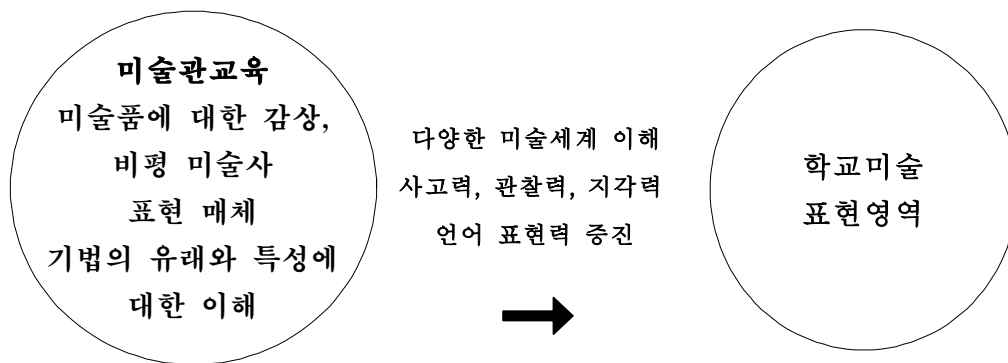
32) 김정희 외, 전개서, p. 65.

<표 - 2> 감상교육의 목표 (제 7차 교육과정)

| 영역 | 목표 |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 감 | (1)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에서 표현 특징을 찾아 비교해 설명하기 | (1)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
| 상 | (2)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 이해하기 | (2)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 이해하기 |

감상활동은 미술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닌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보다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시각적인 안목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셋째로, 미술관의 고유한 특징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의 연계성은 학생들의 미술품 감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미술관과 학교교육의 상호성³³⁾

기존의 학교 미술교육은 표현 영역 중심의 교육으로 전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교육 형태는 미술품에 대한 감상, 비평, 미술사적 측면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므로 미술에서 쓰이는 주된 표현 매체, 기법의 유래와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역사, 비평, 미술사적인 측면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매체에 대한 이해력 까지 높은 교육을 받는다면 사고력, 관찰력, 지각력, 언어 표현력까지 발달하게 될 것이다. 학교미술교육과 미술관교육의 상호성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청소년 미술교육과 미술관교육

그동안 아동미술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청소년 미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흡하다. 청소년 미술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뚜렷하지 못하며, 미술실과 실기도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개별적 성숙도를 무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어린 시절과 같이 사회에서 개별적인 발달이 뚜렷한 시기이다. 이 또래의 욕구는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속 성장하면서 가능성을 펼치도록 돕기 위하여 청소년의 사고와 정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미술교육 과정은 창의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체 자체 보다는 교사의 주도하에 미술교과과정에 속해있는 과정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미술교육 과정은 졸업 후에 아무 쓸모가

33) 손지영,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 연구 : 국, 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20.

없으며 자아 주체성을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등수준에서의 미술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생활하게 될 때까지 창의성을 자극하고, 그런 창의성 발달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미술교과를 이들의 이런 관심과 흥미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미술교과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깊이가 전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개성 또한 포함되고 고려되어야 한다.³⁴⁾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예술가적 품성과 창의성을 기르자는 전인교육이 되어야 하며 미술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 교육의 실상이 여전히 지적편중의 과중으로, 감정과 직결되는 정서 교육이 소외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감성 계발을 위한 미술교육과 미술관교육은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 현행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

현재 학교 미술교육은 대부분 어떤 것을 그리거나 만드는 표현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상 활동은 표현활동에 비해 적게 실시되며, 주로 지식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은 미술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 조형 언어를 통하여 미적 감수성을 키우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표현 활동 위주의 미술 생산자 교육이 아닌, 미적체험과 감상 영역이 표현과 조화를 이룬 미술 소비자 교육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미술의 이해와 감상 활동의 중요성

34) 이윤정, 전계서, p. 17.

이 점점 강조되지만, 이 영역을 소화하기에는 학교 교육 환경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다. 교육환경 한계로는 감상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재, 교사의 감상 지도에 대한 자신감 부족, 자료의 부족과 시설이 열악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미술교과서에 감상 수업을 위해 제시된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수업 지도안이 교사용 지도서나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술사와 미학, 미술 비평 등에 관한 교사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미술 감상 수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어, 어떻게 감상 수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할지 막막해 하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감상 자료가 많이 부족하며, 감상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청각 교구를 갖추고 있는 미술실이 없는 등 교육 시설도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학교에서는 양질의 감상교육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결국 지금까지 실시해 온 실기 중심의 미술 교육이 아직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 학교미술교육의 대안으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앞서 보았던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미술과 교육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미술에 관련된 교육, 즉 박물관이나 문화센터,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³⁵⁾

이처럼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이 보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미술관 교육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실제작품과의 대면’이라는 감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아닌 미술관에서 이해와 감상 수업에 대한 강의와 토론 및 자료를 제공하고, 감상 수업에 대해 기반 지식과 수업 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교사들이 지적 자극의 동기를 부여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 또한 기존의 암기나 표현·기능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미술관 교육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교미술교육의 문제점을 대안하며, 미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의 부재로 인한 문화결핍이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문화의 장을 미술관에서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미술관에서는 크고 작은 미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미술교육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미술관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청소년 미술관 교육은 감상수업과 실기 창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적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미술교육은 표현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기활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미술교육은 미술품 감상·비평·미술사적 측면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술관교육은 일반 교육이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을 포괄하여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미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

35) 이규선 외, 『미술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4, p. 8.

36) 공경주,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p. 25.

첫째는 미술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교육으로서 미술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각종 전시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미술작품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한다. 미술 작품을 직접 접하며 배운다는 의미에서 현장성을 살린 교육의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다.³⁷⁾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미술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올바른 미술 감상법을 익히게 하여 미술 및 미술관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때 미술작품을 접하는 태도를 알려주어 올바른 관람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청소년들은 미술관에서 진품을 감상하면서 미술품을 통하여 자기 밖의 세계를 체험하고 재인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통한 표현력도 길러진다. 실제 작품을 감상한 후 다양한 매체나 기법 등 작가의 조형언어를 인식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 발상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기법이나 방법을 이용, 이를 창작 작업으로 연계시켜 표현해 봄으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미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 때 실기방법론을 주입하거나 손재주를 익히는 것 보다는 진품 감상을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청소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표현방법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확인하고 창의력을 담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조화로운 인간 형성의 일환으로써 미술교육인 “종합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미술이 전인적인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이 단지 기법적인 숙달에 국한되지 않고 미술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유의미하게 체계화 시켜내는 능력, 작품을 통해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작가의 정신세계나 삶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사회적인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여, 즉 미술작품에 내재된 미술사적, 미학적 가치를 알아내

37) 김지균, 「어린이 미술관 교육의 방법론」, 미술교육논총 제8집, 1999, p. 39.

고 미를 비평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⁸⁾ 따라서 청소년의 미술에 대한 창작과 이해, 그리고 비평의 안목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창작한 작품을 전시회로 기획하여 전시공간에 걸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취욕을 고취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참여 교육”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준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사고력·관찰력·지각력·창의력·언어표현력 등이 발달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진다. 이는 곧 사회적·문화적으로 폭넓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술관은 현실 생활을 한층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려는 태도·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의 활용은 안팎의 학습을 연속시켜서 사회생활에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강조하고 사회생활과의 연결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미술관은 행동과 경험에 의한 현장체험 장으로 최적의 장소이며,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예술적인 환경과 내용으로 엮어진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꼭 필요한 경험이다.

4.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1) 미술관교육과 청소년 감성과의 관련성

미술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등 내면에 관련된 것을 시각예술, 공간예술, 조형예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표

38) 김지균, 상계서, p. 40.

현된 미술은 미술작품의 감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술만의 독자적인 성격과 함께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고찰하여 보면, 미술교육이란 미의 세계를 조형성을 통해 시각화시켜 표현하고 감상하는 미술의 의미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신장시키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한다는 교육의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일환인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을 사회와 모든 계층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여 제공하는 생애교육의 장으로서 ‘봉사적 역할’을 겸하며, 사회적 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의 다양한 방문객의 요구와 흥미를 인식하고,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의 자원, 환경과의 관계를 통하여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미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³⁹⁾

현대사회는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특히 미술을 통한 정서의 순화는 사고 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관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술관의 중요한 사회·교육적 기능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술은 어느 교과 보다 감성과 직결되는 교과이다. 이러한 감성은 미술관 교육에서 예술작품의 내면화와 미적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감성교육을 할 수 있다. 예술의 공통점은 인간 내부의식의 표현에 있으며, 진리나 인지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의사교환이 가능한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에는 인간의 느낌, 정서, 가치, 사고 등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⁴⁰⁾

이런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작가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감성을 향유하

39) 김혜숙, 「미술관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현대미술관연구 제5집, 국립현대미술관, 1994, p. 67.

40) 조빈서, 「미술교육을 통한 감정지능(EQ)의 신장 방안」,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34.

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표 - 3>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 구분
(문화감성 활동 영역)⁴¹⁾

| 21세기 청소년상 | 활동영역 | 활 동 소 개 |
|--------------|------------|---|
| 문화적 감성 | 문화감성 활동 | 문화권탐방 활동, 예술감상 활동, 명절쇠기 활동, 국토탐사 활동, 민속놀이 활동, 노래광장 활동, 놀이한마당 활동, 전통문화사랑방 활동(우리노래, 춤, 악기, 극, 풍속활동),신토불이상차림 활동, 역사연극 활동, 역사인물기행 활동, 역사읽기 운동, 박물관기행 활동, 선현답사 활동, 전통예술창조 활동, 취미생활 활동, 문예사랑 활동, 영상매체이해 활동, 만화이해 활동, 어울마당 활동, 가족과 함께하는놀이24가지 활동, 전설의고향 활동, 하나되는몸짓 활동, 전통축제한마당, 영상음악, 어울춤, 철학기행(31종) |

오늘날 청소년들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존재의 성격을 가치적인 정서를 가지고 표현한 예술 작품의 이해, 표현, 감상을 통해 예술가의 정서와 이미지, 자신의 정서와 이미지를 보고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승화시키고 세련되게 하며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미술관교육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미술은 감성과 직

41) 노용오, 전계서, p. 211.

결되며, 우뇌의 공간 지각력이나 형태력, 직관력, 창의력 등과 직결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감성을 계발하는 아주 효율적인 교과임에 분명하다.

(2) 감성교육으로서의 미술관교육

이처럼 미술관교육은 미술 경험 자체가 본질적으로 감성지능(EQ)의 주요 능력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성지능(EQ)의 능력들이 길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미술과 관련된 행사 즉 미술전시회, 조각전, 서예전, 기타 미술 관련 전시회 등에 참석해 본 경험은 대체로 낮았으며, 그로 인한 미술관교육 또한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 4>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 조사표 (지역별 실태)⁴²⁾

| 구분 | | 여러 번 참석하였 다 | 가끔 참석하 였다 | 한두번 간적이 있다 | 한두번 간적이 없다 | 계 |
|----------|-----|-------------------|-----------------|------------------|------------------|---------|
| 도시 | N | 26 | 109 | 132 | 33 | 300 |
| | (%) | (8.7) | (36.3) | (44.0) | (11.0) | (100.0) |
| 중소 도시 | N | 7 | 72 | 132 | 89 | 300 |
| | (%) | (2.3) | (24.0) | (44.0) | (29.7) | (100.0) |
| 농어촌 | N | 2 | 12 | 99 | 187 | 300 |
| | (%) | (0.7) | (4.0) | (33.0) | (62.3) | (100.0) |
| 계 | N | 35 | 193 | 363 | 309 | 900 |
| | (%) | (3.9) | (21.4) | (40.3) | (34.3) | (100.0) |

42) 조외제, 전개서, p. 48.

여러 번 참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3.9%에 불과한 반면 한 번도 간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4.3%나 되었으며, 가끔 참석한 학생이나 한두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1.4%와 40.3%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술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학생 중심의 노작 활동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술교육(미술활동)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학생들로 하여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한 번도 간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2.3%, 어쩌다 한두번 간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0%로 이 두 가지 경우가 전체 학생의 95.3%나 되어 문화 실조 현상을 알 수 있다.

<표 - 5>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 조사표 (남녀별 실태)⁴³⁾

| 구분 | | 여러 번 참석하였 다 | 가끔 참석하 였다 | 한두번 간적이 있다 | 한두번 간적이 없다 | 계 |
|-----|-----|-------------------|-----------------|------------------|------------------|---------|
| 남학생 | N | 9 | 46 | 204 | 191 | 450 |
| | (%) | (2.0) | (10.2) | (45.3) | (42.4) | (100.0) |
| 여학생 | N | 26 | 147 | 159 | 118 | 450 |
| | (%) | (5.8) | (32.7) | (35.3) | (26.2) | (100.0) |
| 계 | N | 35 | 193 | 363 | 309 | 900 |
| | (%) | (3.9) | (21.4) | (40.3) | (34.3) | (100.0) |

성별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참여 빈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번 간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여학생은 5.8%인데 비하여 남학생은 2.0%, 가끔 참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여학생이 32.7%인데 비하여 여

43) 조외제, 전계서, p. 49.

학생은 10.2%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미술관련 행사에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에게도 미술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미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술활동은 교실 안에서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미술활동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미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 순화와 감성계발에 도움을 주어야 함은 미술 관련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591명(<표 - 5>에서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

<표 - 6>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했을 때의 정서 조사⁴⁴⁾

| 지역 | 구분 | 즐겁고 재미있었다 | 보통이었다 | 지루하고 짜증스러웠다 |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계 |
|-------|-----|-----------|--------|-------------|--------------|---------|
| | | | | | | |
| 도시 | N | 214 | 46 | 2 | 5 | 267 |
| | (%) | (80.1) | (17.2) | (0.7) | (1.9) | (100.0) |
| 중소 도시 | N | 148 | 59 | 1 | 3 | 211 |
| | (%) | (70.1) | (28.0) | (0.5) | (1.4) | (100.0) |
| 농어촌 | N | 95 | 16 | 1 | 1 | 113 |
| | (%) | (84.1) | (14.2) | (0.9) | (0.9) | (100.0) |
| 계 | N | 457 | 121 | 4 | 9 | 591 |
| | (%) | (77.3) | (20.5) | (0.7) | (1.5) | (100.0) |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했을 때 무척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77.3%나 되어 정서순화와 감성계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척 지루하고 짜증스러웠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0.7%와 1.5%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과 관계없는 높은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률이 84.1%로 도시의 80.1%와 중소도시의 70.1%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로도 알 수 있었다.

즉, 미술관련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척 즐겁고 재미있게 생각하여 정서순화와 감성계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감성계발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미술교육이 아닌 미술관교육이다. 감성과 정서는 방임된 상태에서는 세련되지 않으며 모든 생활과 모든 교과가 관련되지만, 감성과 가장 관련이 깊고 자아의 표현인 미술교육을 통해서라면 효과적으로 감성교육을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세련된 인간 감정의 광맥으로서 정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자극원이며 이를 이해하고 지각하고 감상하며 표현하는 것은 감성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길인 것이다.⁴⁵⁾

44) 조외제, 전계서, p. 50.

45) 한명희, 『도덕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의 역할과 교육』, 교육학연구, 1979, pp. 113~118.

V.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미술관교육은 청소년보다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극심한 입시제도 아래에서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제도적, 심리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청소년기는 미술관교육을 하기에 효과적인 시기이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미술교육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미술관교육은 종래의 표현 중심의 미술활동에서 벗어나 풍부한 미적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개성 있는 미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고, 올바른 미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의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1)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례

미술관이 교육적 기능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시장에 진열되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전시 기능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학습적인 교육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이론형식과 실기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론형식에는 강연, 강좌, 세미나, 작품해설 등의 형식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으

로 운영하며 주로 전문가의 설명, 이론 중심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기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교사 등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은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운영되고 있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그 교육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구분하면 크게 안내, 좌담, 강연, 강의,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등과 같은 이론형식, 실기형식과 특별형식, 봉사형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⁴⁶⁾

이론형식으로 개설 운영하는 안내(Tour), 좌담(Talk), 강의(Lecture), 강좌(Course)는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전문가의 설명, 이론 중심의 대화가 특징이며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안내(Tour)는 일반인을 위한 소장품의 해설안내(Guide tour),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안내(Touch tour), 녹음안내, 미술관안내, 특별전시 안내, 특별예약 안내, 외국어 안내, 간단한 안내용 인쇄물과 책자, 녹음기, 휠체어가 제공된다.

좌담(Talk)으로서는 공개좌담회, 주말좌담회, 일요좌담회, 작가와의 대화가 있으며, 미술관교육 담당자, 초청인사, 전시 작가를 중심으로 한 대담이 일반적이다.

강의(Lecture)는 주제별, 시간별, 계층별, 매체별로 분류할 수가 있으며 일반 강의, 특별강의, 슬라이드 강의, 영상강의, 점심강의, 일일강의, 주간강의, 야간 강의, 강의와 토론, 낭송회를 들 수 있다.

강좌(Course)는 특정한 교육과정에 의한 일정기간의 교육을 뜻하는데 정기강좌, 야간강좌, 성인을 위한 강좌, 청소년을 위한 강좌, 전문가를 위한 강좌가

46) 공경주, 전계서, p. 60.

있다.

실기형식은 실기 중심의 미술교육중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교사, 장애인 등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술실기반, 특별실습반 등 지역적 특성과 시설 규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실기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특별형식은 특별히 계획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이용한 미술관학교, 야간행사, 특별공개행사, 작가와의 대화, 작가의 작업실 탐방, 미술관에서의 영화상영 등 미술관이 특별히 계획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적극적 요구와 미술관의 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봉사형식의 미술관 교육은 관람자가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모든 차원에서의 봉사형식 프로그램을 말한다. 학생, 근로청소년, 장애인, 직장인, 주부, 외국인 등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프로그램과 미술관, 박물관의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순환교통 봉사프로그램,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순회전시·이동미술관이 있으며, 이러한 봉사형식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에서 국민은 미술관이 마련한 여러 가지 행사로서의 미술교육프로그램과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서비스로의 미술교육을 기대한다.⁴⁷⁾

이와 같이 다양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나 일반인, 전문가와 미술관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국내 미술관에서는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근 들어 많은 수의 국·공립·사립 미술관들이 교육 분야를 두어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

47) 유근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교육」, 현대미술연구 제3집, 1992, pp. 60~61.

다. 그러나 아직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술관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인 삼성미술관(Leeum), 아트선재센터, 모란미술관, 영은미술관, 환기미술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였다.

1) 국립현대미술관 (www.moca.go.kr)



현대미술작품의 구입·보존·전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현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10월 20일 경복궁에서 개관한 이후 1973년 덕수궁으로 옮겼다가(덕수궁 현대

미술관), 1986년 8월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대지면적 7만 3360.9㎡, 총 건축면적(연면적) 3만 4006㎡의 현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1998년 12월 덕수궁에 미술관 분관을 개관하였다. 부서별 조직은 관장을 중심으로 사무국과 학예연구실로 대별된다. 사무국은 기획총괄과·교육문화과·운영지원과로 구성되었고, 학예연구실은 조사·연구·기획·자료정보·작품관리를 포괄한다. 그 외 도서실, 자료실, 보존과학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근대미술60년전(1972), 한국현대미술100인전(1973), 재외작가초대전(1982), 한국근대미술자료전(1984)을 비롯하여 1986아시아현대미술전, 프랑스20세기미술전, 와이즈만 컬렉션전 등의 전시회 개최와 토요일미술강좌, 미술관학강좌, 초등교사 미술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⁴⁸⁾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들은 ‘미술관의 각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 미술작품의 이해를 통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능력을 높이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창의력과 사고력의 폭을 확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시장 수업이 1회성 견학에 그치는 형식적인 수업이 되지 않도록 미술교육 전문 교수진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한다.⁴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 7>과 같다.

48) 네이버 백과사전.

49) 강수정, 「어린이 미술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현대미술관연구 제 10집, 1999, p. 9.

<표 - 7>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탐방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겨울방학 미술특강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인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양 체험교실 | 중3, 고3 졸업예정자 2회 | 2008년 11월 중순~ 2009년 2월 (대학입시 후) 14:00~17:00 | 이해 및 감상 표현 |
| 미술관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 미술관 및 놀이시설 탐방 | 소외계층 청소년 (단체 매회 40명 내외) | 수시 | 체험 |

‘겨울방학 미술특강’ 프로그램에서는 예술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 미술과 창의력, 교양 예절 특강 등 이해와 감상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과 예술가 초청 강연, 현장학습, 교육 참가자간 친목 프로그램 등 실기와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겨울방학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최근에는 년 중 1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대학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겨울방학 미술특강에서는 수강생의 인원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방학을 이용하여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미술관 관계자 및 학교 교사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미술관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소외 계층 청소년을 초청하여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문화 탐방 및 문

화예술 교육체험의 기회와 함께 인근 동물원, 놀이시설 방문으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인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예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미술관이라는 제한적인 장소가 아닌 미술과 관련된 문화의 장을 넓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미술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시로 더욱 많은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상기 미술관 탐방 프로그램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학교와의 연계교육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음의 <표 - 8>과 같이 마련되어 있다.

<표 - 8>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학교연계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청소년 현대미술 체험교실 | 국립현대미술관 상설 및 기획전시 연계 교육 |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중3) 대학 입학 예정자(고3) | 2008년 11월 ~ 12월 중 | 이해 및 감상 |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 소장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칫 경직되기 쉬운 청소년기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수능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학기 시작 전 미술관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 여가선용 및 창의력 계발을 위한 것으로, 이 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각 주제별 현대 미술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문화와 역사 등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미술 감상법을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미술관에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의 장점을 이용하여 두 곳의 교육의 연계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교육담당자들은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미술관 단체 관람 시 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법을 전달하고자 전시와 관련된 미술영상자료를 다음의 <표 - 9>와 같이 상영하고 있다.

<표 - 9> 미술영상자료 2008년도 11월 편성표⁵⁰⁾

| 구분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회 (14:00) | 포스터로 표현된 어둠속의 축제, 로트렉 | 내면과 형식의 해방 표현주의 / 야수파 | 20세기를 빛낸 15인의 미술계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 | 서양화가 손상기 | 서양화가 손상기 |
| 2회 (15:00) | 도시속의 예술계릴라, 나카무라 마사토 | 디지털 휴머니즘, 다츠오 미야지마 | 떠오르는 스타, 젊은 그들 | 자유를 향한 허무주의적 웃음, 유에민준 | 어린이 애니메이션 -시드의 다이어트- -한여름밤의 축제- |

이 시청각자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회로 상영되고 있는데, 학교와의 사전협의 없이 미술관의 일정에 따른 운영으로 인해, 실제로 주중에는

50) www.moca.go.kr

미술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주로 토요일 하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상에게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다. 토요일 하루에 2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1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영상자료의 개발 및 다양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동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미술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315회의 전시회를 개최, 16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만나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뿐 아니라 산업체, 연구소 등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활공간 속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한편, 전시 방식 또한 기존의 단일 전시 순회방식에서 찾아가는 곳의 역사와 인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통해 문화적 자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호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2008년 ‘찾아가는 미술관의 일정’은 다음의 <표 - 10>과 같다.

<표 - 10> 2008년도 찾아가는 미술관 일정표

| 장 소 | 기 간 |
|-------------------------------|-------------------------|
| 대전 문화기술대학원 (카이스트전시장 등 8개소) | 2008.11.05 - 12.05 31일간 |
| 경남통영시 (페스티벌 하우스 등 3개소) | 2008.10.08 - 11.30 53일간 |
| 경북 월성 (원자력 본부 공원 등 2개소) | 2008.09.19 - 10.30 43일간 |
| 전남 장흥군 (천관 문학관 등 4개소) | 2008.07.30 - 09.30 63일간 |

이처럼 찾아가는 미술관은 소외지역에서도 미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직접 관람객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전시행사로 국립현대미술관만이 수행가능한 문화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지역문화 단체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협조와 함께,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점, 전시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점, 각계 각층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교육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청소년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대상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전시에 따라 내용이 바뀌거나 해마다 차별화된 내용을 구성하려는 교육담당자들의 노력도 엿보이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점도 선구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장기적, 계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는 교육담당부서에 재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구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교수방법 및 교육매체의 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미술관 (www.gma.or.kr)



경기도에서 독립 미술관으로 건립하여 2006년 10월 25일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은 1층에는 로비 갤러리와 수장고, 관람객들의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 미술상품 등을 판매하는 뮤지엄숍이 있다. 2층에는 3063㎡의 주 전시실과 회의실·자료실·사무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어진 건물은 전면을 유리로 시공하여 투명하고 쾌적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한국화·회화·사진·조소·설치·미디어 작품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개관 기념전으로 2006년 10월 25일부터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Joan Miro)의 작품 146점을 선보인 '호안 미로, 상징의 세계'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번지의 화랑유원지 안에 있으며, 인근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있다.⁵¹⁾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미술관의 전시들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51) 네이버 백과사전.

효과적인 정보와 관람객들의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새롭고 흥미로운 미술체험의 기회를 통해 현대미술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 11>과 같다.

<표 - 11> 경기도 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전시연계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p><언니가 돌아왔다> 전시연계 프로그램</p> <p>‘함께 만드는 여성’</p> | <p>여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예술작업으로 보여주는 전시와 연계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과 드로잉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새로운 미래의 여성상을 인형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p> | <p>전시를 관람한 관람객과 단체관람객 (중,고등학생)</p> | <p>2008년 10월1일(수) ~ 2009년 1월 4일(일)</p> | <p>이해 및 표현</p> |

경기도 미술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아직까지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다른 국·공립 미술관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어 미술관교육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술관이다.

미술관의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학생과의 연계성을 잘 활용하여, 미술관으로서의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는 다방면으로 시각적 안목을 확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을 고려해야 하겠다. 즉, 전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의 연구와 재정적인 지원, 이해, 감상, 창작의 영역을 고루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미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3) 서울시립미술관 (www.seoulmoa.seoul.go.kr)



1988년 8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경희궁지 내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개관하였다가 2002년 5월 이전하여 새로이 재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 도심 한복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정동길에 위치해 있다. 1920년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옛 대법원 건물을 파사드(Facade:전면부)만 그대로 보존한 채 신축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다

양한 기획전을 통해 미술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며, 다양한 교육 강좌를 운영하여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밖에도 현대 미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하고, 다양한 출판활동과 작가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본관 외에도 사당동 내 위치한 남서울 분관과 대관전 위주의 경희궁 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⁵²⁾

서울시립미술관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소질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청소년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열린 교실’은 전문 강사와 전시를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생생한 미술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의 <표 - 12>와 같다.

<표 - 12> 서울시립미술관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청소년 열린 교실 (4월) | 전문 강사와 전시를 감상하며 작품과 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중, 고등학생 | 2008년 4월 격주 토요일 13:00~15:00 | 이해 및 감상 |
| 청소년 열린 교실 (A) | 중, 고등학생 대상의 미디어아트 감상교실 | 중, 고등학생 | 2008년 9월 20일 ~ 11월 1일 격주 토요일 10:00~12:00 | 이해 및 감상 |
| 청소년 열린 교실 (B) | 중, 고등학생 대상의 미디어아트 감상교실 (전시와 함께) | 중, 고등학생 | 2008년 9월 20일 ~ 10월 4일 격주 토요일 15:00~17:00 | 이해 및 감상 |

52)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및 직장인, 미술전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론과 실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 강사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는 이론에 비중을 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격주 토요일 마다 시간대를 달리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교육프로그램의 제목인 ‘청소년 열린 교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한 프로그램 구성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미술관의 규모와 성격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대상에 비해 적은 횟수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충, 교수방법, 교육매체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미술관교육의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4) 삼성미술관(Leeum) (www.leeum.samsung.org)



삼성미술관(Leeum)은 삼성문화재단이 도시·건축·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예술·인간·문화가 서로 만나 대화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지평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10월 19일 문을 열었다. 리움은 설립자의 성(姓)인 'Lee'와 미술관을 뜻하는 영어의 어미 '-um'을 합성한 것이다. 한국미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미술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한국과 전 세계의 미술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다리, 관람객이 한층 발전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열린 교육의 마당, 작가·연구자·관람객을 포함하는 모든 참여자가 미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문화 쉼터의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⁵³⁾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교사와 중등학생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소장품을 감상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리움틴즈(Leeum Teens)'를 비롯하여 교사연수 등 다양한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움틴즈'의 교육내용은 <표 - 13>과 같다.

<표 - 13> 삼성미술관(Leeum)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리움틴즈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중, 고등학생 | 2008년 3월8일~12월6일 토요일 10:00~11:40 | 이해 및 감상 |

53) 네이버 백과사전.

학교연계프로그램의 일환인 ‘리움틴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미술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교사용 교재와 학생용 교재를 활용하여 미술관에 오기 전에 선행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리움틴즈’를 신청하지 못한 교사도 교재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교재의 활용은 삼성미술관이 시초가 되고 있다. 다른 미술관들도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매체의 개발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매체의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에도 미술관측의 노력이 요청된다. 미술관에 방문하여 전시를 감상하고 설명을 듣는 현재의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아트선재센터 (www.artsonje.org)



경주시에 있는 선재미술관의 분관인 아트선재센터는 처음에는 한옥을 개조하여 개관하였으나 전시 공간 확충과 관람편의를 위하여 1998년 현대식 미술관을 새로 지어 이전하였다. 선재미술관이 주로 현대미술을 다루는 반면, 이곳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미술장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행사로 유화·조각·판화 등 국내외 현대작가의 작품 전시 외에 미술관 내 극장에서 음악회를 열거나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행위예술이나 마임·연극 등을 공연하기도 한다. 기성작가보다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다.⁵⁴⁾

아트선재센터의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단체 전시관람 프로그램은 초,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년 4회 이상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미술과 생활, 미술과 사회, 미술과 자연, 미술과 사람 등의 주제에 따른 개인 활동으로 미술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유로운 자기 표현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 14>와 같다.

<표 - 14> 아트선재센터 청소년을 위한 단체전시 관람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단체전시 관람 프로그램 | 신청을 통하여 1년 동안 전시되는 전시관람 및 미술과 생활, 미술과 사회, 미술과 자연, 미술과 사람 등의 주제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적으로 표현 | 초, 중등학생 | 1년 중 전시 기간에 따라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 | 이해 및 감상 표현 |

54) 네이버 백과사전.

아트선재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도슨트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일반인 프로그램과 단체전시 관람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단체전시 관람프로그램이 초, 중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다. 때문에 부모님을 위한 전시 설명이라는 특별한 기획도 마련되고 있으며, 중등학생의 경우 사전예약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 상 1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부족한 중등학생들이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다양한 교육대상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술관측의 배려가 요청된다.

6) 모란미술관 (www.moranmuseum.org)



1990년 4월 28일에 개관한 모란미술관은 야외조각미술관과 실내 전시장, 학

예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야외 전시장에는 국내외 유명 조각가의 작품들을 전시하여 한국 현대조각의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내 전시실에는 국내외의 우수한 조각 등 평면과 입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시설 외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였고, 학예연구실에는 국내외의 미술 관련 서적과 슬라이드를 갖추고 있다.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조소 214점, 회화 43점, 판화 87점, 기타 작품 7점 등 총 350여 점이다.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산책과 사색을 위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미술관 내의 야외음악당 무대와 넓은 야외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조각의 새 표현전을 시작으로, 1992년 프리미티비즘이라는 모란 국제 조각 심포지엄을 여는 등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모란조각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으로 모란미술관학교를 운영한다.⁵⁵⁾

모란미술관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춘천의 지역문화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지역 문화 활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1993년부터 ‘모란미술관학교’를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대상학생의 구성 또한 경기도 내의 미술관의 인접지역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의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에서도 통학이 가능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과의 연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모란미술관학교’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열린 현장체험 학습의 교육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특히,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풍부한 실제 작품과 자료를 경험하고, 미술관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청소년을 위한 모란미술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 15>와 같다.

55) 네이버 백과사전.

<표 - 15> 모란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모란미술관학교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모란미술관 학교 | 매 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이를 재해석하고, 학생 스스로의 꿈을 새롭게 구성하여 자신만의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보는 예술체험 | 중, 고등학생 | 매년 여름방학 초 (7월말일경)에 8일간 하루4시간 | 표현 |

또한 모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흙 놀이’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흙 놀이’ 도예교실은 흙이 갖고 있는 특성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창조적인 시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식교육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성교육을 제공한다. 단체교육과정과 개인교육과정으로 나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표 - 16>과 같다.

<표 - 16> 모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흙 놀이’도예교실)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흙 놀이’ 도예교실 | <단체교육과정> 1. 흙 놀이 2. 피카소 페인팅 3. 라꾸 소성 | 초, 중, 고등학생 | 화요일~일요일 1회: 10:00~12:00 2회: 13:30~15:30 | 표현 |
| | <개인교육과정> 1. 물레체험 2. 빗기체험 3. 초벌페인팅 4. 손발찍기 | 초, 중, 고등학생 | 토요일, 일요일 | 표현 |

모란미술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운영되다가 폐지되는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장기성과 체계성이 두드러지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수료와 함께 한 달 동안 미술관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주기도 한다. 이는 일회성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미술의 대중성과 함께 미적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과 상장, 상품 및 기념 티셔츠가 수여되는데, 이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기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 매년 쉬지 않고 실시되는 미술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7) 영은미술관 (www.youngeunmuseum.org)



1992년 설립된 대유문화재단이 한국 예술문화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1월 설립한 영은미술관은 미술관과 창작 스튜디오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동시대 현대미술을 연구·소장·전시할 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에 역점을 둔 미술관 형태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시대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은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멀티미디어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영은홀, 지하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작가가 작업할 수 있는 경안 창작 스튜디오는 평면 스튜디오와 입체 스튜디오, 판화 및 도예 공방, 가마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2000년 개관한 이후, 2000년 12월 '만남과 표현전', 2001년 '아시아 현대조각전', 2002년 '동방의 숨결전', 2003년 '신체로의 여행 공간으로 여행전' 등을 전시한 바 있다. 강연회, 심포지움, 어린이 미술교실 등 다양한 미술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⁵⁶⁾

영은미술관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 17>과 같다.

56) 네이버 백과사전.

<표 - 17> 영은미술관 미술아카데미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나만의 미니화실 | 영은미술관 입주작가 10명의 전시를 관람하고 화가의 화실을 상상해 보는 기회를 통해 미술을 더욱 가까이 이해하고 나만의 화실을 만들어 보는 창작프로그램 | 초, 중학생 | 2008년 7월5일 ~ 8월31일 (매주 토,일) 1회: 10:00~12:00 2회: 14:00~16:00 | 감상 및 표현 |

<표 - 18> 나만의 미니화실 프로그램 내용⁵⁷⁾

| | 차 례 | 시간 | 내용 | 장 소 | 준비물 |
|---|-----------|-------|--|-----------|--|
| 1 | 미술관 소개 | (10분) | 인사 / 미술관 소개 (미술관과 야외조각공원 및 작가스튜디오에 대해 설명) | 영은미술관 로비 | 연필, 지우개 그림 속 주인공이 될 열린 마음. |
| 2 | 미술관 약속 | (10분) | 미술관 예절 배우기 | 제 1전시장 | |
| 3 | 작품 감상 | (40분) | 전시설명 및 전시관람 / 활동지 작성 | 제 1,2 전시장 | |
| 4 | 전시연계 창작활동 | (50분) | ‘나만의 미니화실’ 제작 | 영은홀 | 즐거운 마음, 나의 아이디어 (재료는 미술관에서 준비합니다.) |
| 5 | 감상, 발표 | (10분) | 내 작품 감상, 발표, 정리 | | |

57) www.youngeunmuseum.org

이 프로그램은 영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경안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전시를 관람한 후에 전시와 연계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작가의 화실을 상상해보고, 창작해보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여타 미술관들의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이 미술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안창작스튜디오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안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과 함께 현장감 있는 학습과 새로운 미술체험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반면, 방학에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교육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술관의 홍보와 더불어 미술아카데미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미술관측에서는 프로그램의 장기성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8) 환기미술관 (www.whankimuseum.org)



서양화가 김환기를 기념하여 1992년 개관한 환기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10-8번지에 있다. 3백여 평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김환기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상설전시장과 각종 기념전 및 기획전을 여는 기획전시장이 있다.

1990년 공사에 착수하여 1992년 11월 환기미술관을 개관하고 1993년 11월 기획전시장과 카페테리아, 아트숍이 있는 별관을 완공, 환기미술관 전관을 개관하였으며, 1997년 11월 수향산방을 완공하였다. 건물은 건축가 우규승이 설계하였다. 1996년 환기재단 주최로 20, 30대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공모전 <프리환기> 상을 제정하여 작가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시 외에 미술 강좌, 세미나, 감상회, 음악회 등을 연다.⁵⁸⁾

환기미술관 역시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5개의 프로그램인데 그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4개이며, 나머지 1개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이 하나의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 19>와 같다.

58) 네이버 백과사전.

<표 - 19> 환기미술관 전시연계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분류 |
|--|---|---|---|-----------------|
| 환기미술관 공간 읽기 -움직이는 퍼즐 맞추기- | 교사의 설명과 활동지를 통하여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관 건물과 정원을 탐험하며, 실기프로그램으로는 참가자가 서로 협동하여 나무 구조물 위에 나눠진 그림을 그리고 다시 하나의 퍼즐로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초등학교 고학년, 중, 고등학생, 성인 (1회 정원 10명) | 2008년 7월~11월 (여름방학 기간 매주 금요일, 학기 중 매주 토요일) | 표현 및 현장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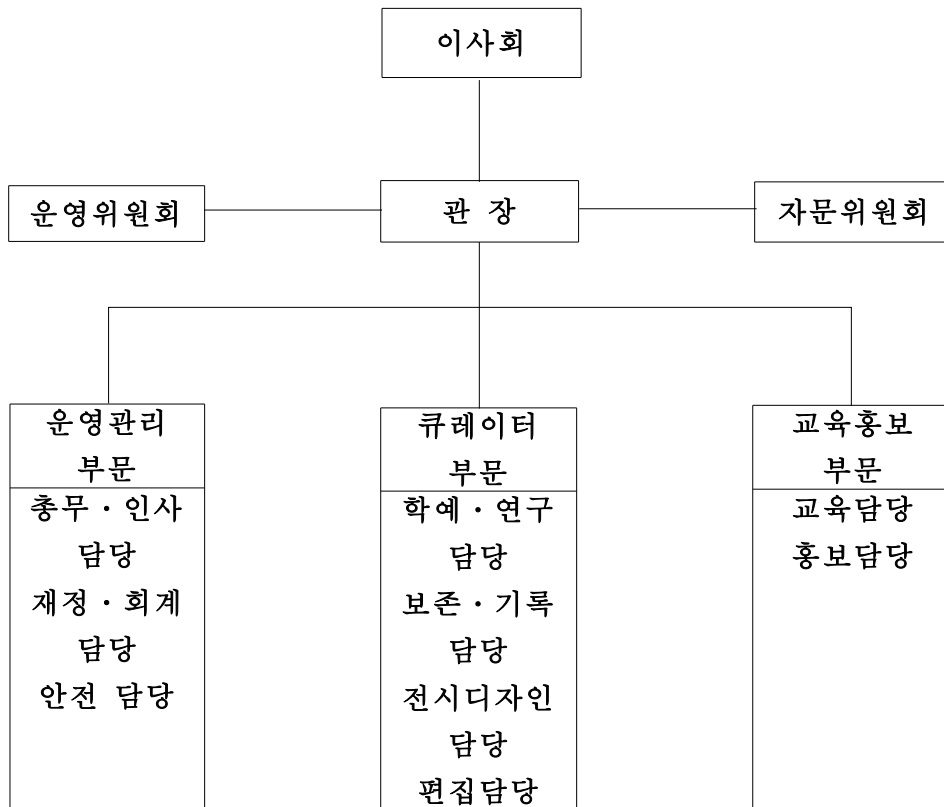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환기 화가의 예술적인 멋을 건축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환기미술관을 탐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협동학습의 모델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자아중심적 동기와 친구들과의 유대를 갖고 싶어 하는 사춘기의 사회적 동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적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시기인데, 이와 같은 미술을 통한 협동학습은 동료와의 동일시를 통한 자아의 재체제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기미술관은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단체교육문의 시에 강좌를 개설해주는 미술관측의 배려가 돋보이는 반면, 청소년을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아동과 성인이 함께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2) 미술관교육 전문가의 기획과 역할

미술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수집된 미술관의 작품과 작품을 보관할 건물,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사람이 세 가지이다. 이 중 마지막 요소에 해당하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림 - 2> 미술관 조직표⁵⁹⁾

59) 이영두, 『미술관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삶과 꿈, 1997, p. 168.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Educator)⁶⁰⁾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담당자는 미술영역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능력으로 다양한 방면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교육담당자의 핵심 직무 및 역할은 미술관 소장품 및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것이며, 미술관 관람객의 연구를 통해 그들의 흥미, 관심, 호기심, 능력을 파악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소개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이해는 물론 미술관의 교육적 가치 인식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담당자는 미술관의 공식, 비공식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술관이 주최하는 미술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초빙 강사를 섭외하며,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특별 강좌를 개설하여 미술관 회원을 조직하고, 라디오 및 TV의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⁶¹⁾

최근에는 특정한 대상과 교육적 목적에 따라 기획되는 교육용 전시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구의 경우 일반 전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담당자가 전시기획에 참여하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교육담당자가 직접 교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교육담당자의 교육자(teacher) 역할이 강조되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

60) 박물관 교육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박물관 교육 전문 인력의 직업적 정체성과 교육 훈련의 문제가 선도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국의 경우,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를 통해 에듀케이터의 주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에듀케이터는 박물관의 소장품과 자원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를 담당한다. 때로는 이를 관리하는 책무를 맡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며 교육용 전시(education exhibition)와 인쇄물, 시연, 수업, 투어, 영화, 강연, 특별행사, 워크숍, 교사연수 프로그램, 학교프로그램, 도슨트 훈련을 담당할 수 있다. 직급에 따라 교육관련 행정 관리 및 경영의 책임을 맡기도 한다.”

61) 이영두, 상계서, p. 177.

육담당자가 보편적이고 이상적으로 간주되나, 국내의 경우 교육담당자가 교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보다 기획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교육은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교육담당자가 미술관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관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담당자가 모든 대상층의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의 영세함도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며, 전시 업무 위주의 미술관 풍토에서 그 중요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⁶²⁾

미술관 교육담당자의 목표는 가능한 관람자로부터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인상이 남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관람객들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야 한다.⁶³⁾

전문 전시기획자가 필요하듯 교육 활동을 위한 교육의 전문가 역시 필요하다. 즉,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교육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위치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며, 이것은 곧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다.

(3)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방법

대부분의 관람객은 그들 나름대로 미술관의 전시작품에 대해 탐구하고 배우

62) 이영두, 상계서, p. 184.

63) 유혜련, 「효율적인 미술관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55.

고자 하므로, 미술관은 이들에게 설명판, 리플렛, 도록, 강연회, 강좌, 오디오가이드, 전시설명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미술관이 관람객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본적인 교수 방법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실제로 습득하는 지식의 양과 질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미술관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은 다음과 같다.⁶⁴⁾

1) 강연(lecture)

강연은 일반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전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한다. 주체 측의 의도에 따라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정도에 의하여 강연의 주제나 내용이 결정된다. 강연은 강사의 선택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강사의 선정은 강연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획전의 경우 더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다루는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그러나 이 분야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는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2) 미술 아카데미 강좌(academy)

요즘 우리나라 대부분이 미술관에서는 미술 강좌의 하나로 미술 아카데미(academy)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미술관 마케팅 활동, 즉 미술관 교육을 하고 있다. 미술 강좌는 미술관의 미술 아카데미 운영 방침에 따라 미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인 이론 강좌와 실기 강좌(workshop)로 나눌 수 있다. 강좌

64) 이영두, 전계서, pp. 186~190.

는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강연과 구별되며, 강사는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 강좌 내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강좌 내용에 따라 수강자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는 일반반, 연구반, 특강반 등으로 구별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가 더욱 크다. 강사 선정이 미술 아카데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각 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좌는 원래 목적이 학교나 연구소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시중에 개설되어 있는 미술교실과 구별하여 미술관이 독자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일반인 중에 미술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미술관회,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3) 전시장 해설(gallery talk)

전시장 해설은 전시장 안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제로 전시실에서 작품을 보면서 행하는 해설 활동의 하나이다. 아주 한정된 테마로 작품을 앞에 두고 더욱 전문적인 내용의 해설을 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때는 자원 봉사자가 아닌 전문 미술관 스태프가 해설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술적 깊이가 있어야 함은 물론 수려한 화술도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예팀에서 행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독립된 교육팀의 교육담당자(educator)가 담당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팀이 조직화되어 있는 미술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큐레이터(학예연구원, curator)⁶⁵⁾가 대신하고 있다. 다만 전시장 해설의

65)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받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재정의 확보, 유물의 보존 관리, 자료의 전시,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법적인 자격규정이 있다. 먼저 박물관학(博物館學) 과정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자격증이 부여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칠 경우(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박물관

경우 기획전 등의 내용에 따라 교육팀 뿐만 아니라 학예팀의 전문 스태프가 하는 경우도 많다. 횡수와 요일은 미술관에서 결정하고, 관람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전시장해설을 할 때는 인쇄물의 활용과 전자기기의 활용의 두 종류로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전시에 대한 홍보는 인쇄물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왔고 또 가장 효과적이었다. 인쇄물로는 도록, 화집, 리플릿, 포스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자 기기의 활용은 급속한 전자기기의 발전에 힘입어 작품을 해설하거나 전시를 홍보할 때 전자 기기를 활용하면서 교육 기법의 형태와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전자기기란 TV, 비디오, CD플레이어 등 음향(audio)과 영상(video)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기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전시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오늘날 활자 문화에서 영상 문화로 대중의 기호가 변화하면서 음향과 영상에 의한 작품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는데 매우 유효한 교육 홍보물이 되고 있다.⁶⁶⁾

4) 전시장 안내(guide tour)

전시장 안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전시된 작품을 선정하여 안내코스를 결정하고 관람객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일이다.⁶⁷⁾ 전시장 안내는 어린이부터 일

관학·문화사(文化史)·시청각교육개론·사회교육개론·교육원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민속학·고고학·미술사·생물학·지학(地學) 등에서 선택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이 수여된다.

이러한 학예연구관은 행정적으로 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박물관운영에 대한 기획, 진열설의 디자인과 조명(照明), 색채의 조화, 그리고 일반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끄는 흥행사적(興行師的)인 기질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장유물에 대한 훌륭한 설명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장품에 대한 간단한 수리(修理)와 복원(復元) 및 사진(寫眞)에 대한 지식, 시청각교재의 이용 등 광범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물관과 박물관 사업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한 인간성을 지니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66) 이영두, 전계서, pp. 190~191.

67) 전시장 안내는 도슨트(docent)가 담당한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으로서,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긴 뒤, 1907년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제도이다. 일정한 교육

반인에 이르기까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므로 전시 개최 목적과 전체적인 전시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행시에는 되도록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대상자에 따라 설명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며, 작품에 대한 선입관을 심어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⁶⁸⁾ 우리나라 일부 미술관에서 관람객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에 의한 해설 안내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전시장 안내가 전시장 코스나 관람객에게 작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술관이 대부분이다.

2.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및 문제점

앞 장에서 국내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 20>과 같다.

을 받고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안내하면서 전시물 및 작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는 1995년 도입되었다.

일종의 전문 안내인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이 문화재나 미술을 좋아해 자원해서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들은 미술에 대한 지식이나 안목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익힌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원으로 봉사한다.

2003년 현재 한국에는 3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나 미술에 대한 애정과 일정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며, 2개월 내외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68) 박우찬, 『전시, 이렇게 만든다』, 재원, 1998, p. 94.

<표 - 20>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 | | 국립 현대 | 경기도 | 서울 시립 | 삼성 | 아트 선재 | 모란 | 영은 | 환기 |
|--------------------|------------------|---------------------------|---------------|---------------|---------------|---------------------|----------------|---------------|---------------|
| 교육 기간 | | 수시 | 전시에 따라 | 전시에 따라 | 전시에 따라 | 전시에 따라 | 매년 여름 방학 | 전시에 따라 | 수시 |
| 교육 분류 | | 이해 및 감상 표현 체험 | 이해 및 표현 | 이해 및 감상 | 이해 및 감상 | 이해 및 감상 표현 | 표현 | 감상 및 표현 | 표현 및 체험 |
| 프로 그램 유 형 | 전 시 연 계 | o | o | o | o | o | x | o | o |
| | 학 교 연 계 | o | x | x | o | x | x | x | x |
| | 독 자 적 | o | x | x | x | x | o | o | x |
| 참가비 | x | x | x | x | o | x | o | o | |
| 담당 부서 | 교육 문화과 | 교육팀 | 교육 홍보과 | 교육팀 | 교육팀 | 교육 팀 | 교육팀 | 교육팀 | |

<표 - 20>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국내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함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미술관 운영과 활동이 소장품과 전시 위주로 이루어져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며, 전시연계 프로그램들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술관의 교육담당자나 도슨트,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는 형태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해 및 감상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실기를 이용한 표현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매년 미술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란미술관과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전시에 따라 교육기간이 정해지며, 주로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되거나 정원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인원을 모집한다. 이로 인해, 일회성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내용 또한 전시감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의 장이 전시장으로 옮겨졌을 뿐 단체 전시 관람의 성격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관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술관이 학교 미술 교육연장의 장이며, 문화의 장이며, 휴식처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술관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모란미술관학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다른 미술관에 비해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연계 프로그램과 학교연계 프로그램, 독자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돋보이는데, 특히 국립현대 미술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미술관’은 1990년부터 실시 된 새로운 개념의 이동 전시로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미술관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그림 - 3>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 3> ‘찾아가는 미술관’ 2008 대전 카이스트전 설치 장면⁶⁹⁾

이와 같이 미술관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홍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국립현대 미술관과 더불어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미술관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 미술관인 모란미술관의 모란미술관학교는 지역미술의 발전에 선구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전시연계, 학교연계 프로그램이 아닌 매년 여름마다 학생을 모집하여 기존의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모란미술관학교의 매년 진행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 21>과 같다.

69) www.moca.go.kr/modern/moca

<표 - 21> 모란미술관학교 15회 프로그램 주제

| | 기 간 | 실기작품 전시일 | 프로그램 주제 |
|-----|-----------------------|-----------------------|---|
| 1회 | 1993.7.22 - 1993.8.7 | 1993.8.7 - 1993.8.31 | 입체반 / 회화반 |
| 2회 | 1994.7.29 - 1994.8.4 | 1994.8.5 - 1994.8.26 | 미술이론 / 평면반 / 입체반 |
| 3회 | 1995.7.26 - 1995.8.1 | 1995.8.4 - 1995.8.25 | 미술감상 / 평면반 / 입체반 |
| 4회 | 1996.7.25 - 1996.8.3 | 1996.8.3 - 1996.8.26 | 미술이론 / 평면반 / 입체반 |
| 5회 | 1997.7.24 - 1997.8.2 | 1997.8.2 - 1997.8.31 | 미술이론 / 평면실기 / 입체실기 |
| 6회 | 1998.7.28 - 1998.8.1 | 1998.8.2 - 1998.8.31 | 미술이론 / 평면실기 / 입체실기 |
| 7회 | 1999.7.25 - 1999.7.31 | 1999.7.31 - 1999.8.31 | 미술이론 / 입체반 |
| 8회 | 2000.7.25 - 2000.7.29 | 2000.7.29 - 2000.8.20 | 미술이론 / 입체 / 평면 / 디지털 영상 |
| 9회 | 2001.7.24 - 2001.7.31 | 2001.7.31 - 2001.8.12 |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내가 잘 아는 곳’ |
| 10회 | 2002.7.23 - 2002.7.30 | 2002.7.30 - 2002.8.18 | 자연을 꿈꾸고 있어요 - 숲, 사색 그리고 미술 |
| 11회 | 2003.7.23 - 2003.7.30 | 2003.7.30 - 2003.8.20 | 이야기하는 미술 |
| 12회 | 2004.7.23 - 2004.7.30 | 2004.7.30 - 2004.8.31 | 소설 속에 ‘나’ 시 속에 ‘너’ |
| 13회 | 2005.7.22 - 2005.7.29 | 2005.7.29 - 2005.8.31 | 움직이는 미술표현 |
| 14회 | 2006.7.28 - 2006.8.4 | 2006.8.4 - 2006.8.31 | 신나는 공작소 |
| 15회 | 2007.7.23 - 2007.7.29 | 2007.8.1 - 2007.8.31 | 미술에서 ‘공감각’과 ‘동시성’ 그리고 ‘소음’ |

모란미술관학교는 기존의 미술관 소장품과 전시를 위주로 한 전시연계프로그램의 미술관교육에서 탈피한 미술관의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로 <표 - 21>과 같이 매 년 다른 프로그램명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의 선구적인 사례로 돋보이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미술관에서 학생들의 실기작품 전시의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교육기간 내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란미술관학교는 <그림 - 4>와 같이 입교식을 거친 후에 제작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림 - 4> 모란미술관학교 입교식과 제작활동⁷⁰⁾

모란미술관학교는 사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비가 무료라는 점이 장점인데, <표 - 20>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실기제작을 하는 사립미술관에서는 참가비를 받고 있다. 참가비는 주로 재료비로 사용되는데 재료에 대한 준비는 전적으로 미술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가비를 받지 않는 미술관에서는 교육의 형태가 주로 전시와 연계된 이해 및 감상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미술관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의 실기 제작

70) www.moranmuseum.org/study/school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재되어 있는 감성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미술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치는 경우와 달리 사립미술관인 영은미술관에서는 홈페이지 이외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미술관 교육담당자들과 참가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실기제작과정과 제작물이 담긴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었으며, 교육담당자들 또한 다음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반면, 청소년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참가는 활발한 반면, 청소년들의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영은미술관의 미술아카데미 중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제작물은 <그림 - 5>와 같다.



<그림 - 5> 영은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작물
(유리공예, 천연비누, 천연염색, 도예체험)

또한, 국내미술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문화과의 교육담당자들이 전시연계와 학교연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미술관에서는 교육팀이 따로 존재하기는 하나 재정적 어려움, 조직의 영세함 등으로 교육업무를 전담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겸직하고 있어 그 전문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시업무 위주의 미술관 풍토에서 그 중요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적합한 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형태가 전시를 위주로 한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다양성과 체계성의 부재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술관교육을 단순히 구색 맞추기식이 아닌, 전인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태도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22> 국내 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 | 국립 현대 | 경기도 | 서울 시립 | 삼성 | 아트 선재 | 모란 | 영은 | 환기 |
|----------------------|----------|--------------------|----------|----|-----------------------|----|-----------------------|------------------------------|
| 어린이 교육프로 그램 실시 | ○ | ○ | ○ | ○ | ○ | ○ | ○ | ○ |
| 청소년 교육프로 그램 실시 | ○ | ○ (어린이 와 함께) | ○ | ○ | ○ (어린 이와 함께) | ○ | ○ (어린 이와 함께) | ○ (어린이 · 성인과 함께) |
| 성인 교육프로 그램 실시 | ○ | ○ | ○ | ○ | ○ | ○ | ○ | ○ |

첫째로, 현재 미술관에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표 - 22>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어린이나 성인과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비중이 적고 <표 - 20>과 같이 다양성에도 뒤쳐진다. 이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미술교과는 적은 수업시수로 인해 그 중요성이 희석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술관교육을 통한 학교 밖의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기회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며,

<표 - 23> 국·공립 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⁷¹⁾

| 구 분 | | 국립 현대 | 서울 시립 | 광주 시립 | 부산 시립 | 대전 시립 | 경남 도립 | 전북 도립 |
|---------------------|-----|----------|----------|----------|----------|----------|----------|----------|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실시 | | ○ | ○ | ○ | ○ | ○ | ○ | |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실시 | | ○ | ○ | | | | | |
|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 | ○ | ○ | ○ | ○ | ○ | ○ | |
| 가족 프로그램 실시 | | ○ | ○ | ○ | | | | |
| 학교연계교육 프로그램 실시 | | ○ | | | | ○ | | |
|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 | ○ | ○ | | | | | |
| 전문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 교사 | ○ | | | ○ | | | |
| | 도슨트 | ○ | ○ | ○ | ○ | ○ | ○ | ○ |
| | 인턴쉽 | ○ | ○ | ○ | ○ | ○ | ○ | |

71) 손지영, 전계서, p. 31.

<표 - 23>에서와 같이 타 지역의 국·공립미술관에서조차도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로, 미술관교육의 계획이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미술관측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짜여져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모란미술관의 경우처럼 매년 방학마다 정기적인 기간으로 교육이 진행되거나, 국립현대 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처럼 미술관이 교육대상을 찾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일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전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관람자와 학생들을 기다리지만 말고 미술관이 기획하는 각종 행사를 소개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 홍보에 나서야 한다.

넷째로, 대부분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시에 따른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비속적이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의 계획의 부재로 인해 자체적인 연구 없이 다른 미술관의 교육활동 모델을 빌려오거나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가 아닌 미술관이라는 장소성의 힘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시각적 안목을 높여 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은 시급하지만, 미술관 자체의 전시 기능을 교육적 기능으로 비중을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다섯째로, 미술관에 교육담당 부서가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교육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도 전시와 관련된 행정직과 겸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 이는 교육업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시사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교육업무 체계에 의한 효율성과 연구 성과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현대 미술관과 외국의 미술관의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는 <표 - 24>를 살펴보면

<표 - 24> 국내미술관과 외국미술관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 국 가 | 한 국 | 미 국 | 영 국 | 프랑스 |
|---------|---|--|---|---|
| 미술관 | 국립현대 미술관 | 뉴욕현대미술관 | 런던국립 미술관 | 퐁피두센터 |
| 담당 부서 | 교육문화과 (행정공무원, 교육담당자) | 미술관 교육부 (교육 담당 에듀케이터) | 미술관 교육부 (교육 담당 에듀케이터) | 미술관 교육부 (교육 담당 에듀케이터) |
| 프로그램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관탐방 프로그램 -학교연계 프로그램 -미술영상 자료 -이동 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프로그램 -요일 별 작품제작 프로그램 -청소년 커뮤니티 -미술 & 과학 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스터디 -계절 및 방학 인턴십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단체관람 프로그램 -학교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근학교와의 연계교육 -청소년 가족을 위한 셀프가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 현대 미술체험 워크숍 - 미술 작품, 미술가와의 만남 -놀이를 통한 실험과 발명 -셀프 가이드 -학교연계 프로그램 -이동 전시 |

, 미술관교육 담당자의 역할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국내 미술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미술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표 - 24>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 미술관 안에 교육담당부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에듀케이터들에 의해 교육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운영된다.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사와 교육담당 에듀케이터와의 협력 하에 계획되며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많이 주어지고 연수와 워크숍, 자료 등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갤러리대담, 셀프가이드, 타 교과와의 통합 프로그램, 이동 전시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학교에서 부족한 미술교육을 사회교육 기관인 미술관에서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미술관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 중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은 독창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술관교육의 모델이 되었으며, 뉴욕현대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람객이 많이 찾아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말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는 국내의 미술관과는 달리 요일별로 주제가 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계절 및 방학 별로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일회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다. 미술관측의 일방적인 계획에 청소년들이 맞추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모여 만든 커뮤니티나 스터디 그룹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 된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미술관 교육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타 교과와의 통합을 계속적으로 시도

하는 적극성으로 이어지며, 청소년과 학교, 미술관측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미술관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와 위에 제시된 문제점들은 국내 미술관교육의 교육담당자의 역할과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술관을 통한 교육은 학교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술관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약한 부분을 채우고, 미래의 미술문화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미술관교육을 통해 미술관 문화와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절실하다.

3. 미술관교육을 통한 청소년 감성계발의 과제

이제까지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관 교육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입시제도하에서 차지하는 미술교과의 낮은 위상과 그에 따른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지원, 현장학습의 어려움, 지역적 편차 등 미술관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적안목과 정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소년기의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활동은 청소년기의 정신적 불안, 좌절, 폭력에 대해서 정서의 함양과 감성에 자극을 주고받으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미적 정서의 고양과 바람직한 인격의 함양을 위해서는

미술관교육을 통해 올바른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미술관교육을 통한 청소년 감성계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로, 미술은 인간 내면의 것(감정, 정서, 지능, 느낌 등)을 시간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미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길러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함과 더불어 자연의미를 즐기며 여가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명량한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하는 전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지주의의 편향적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미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좀 더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미술관교육을 통한 정서순화로써 기본적인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현재의 미술관교육은 학교미술교육의 과제수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관을 찾은 학생들을 보면 수첩에 열심히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시의 이해 및 감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술관이라는 장소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현장에서 느끼는 작품의 생생한 감동을 통한 미적체험에 방해가 된다. 미술은 정답이 없는 교과이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견해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미술관의 방문은 학교 미술수업의 연장일 뿐이므로 더 이상 미술관 교육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미술관이 학교미술교육의 연장이 아닌 독립적인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사들과 학생, 미술관교육 담당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들과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의 상호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므로 방학 때나 방과 후 또는 토요일에 활동할 수 있는 수강 시간 편성의 적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 교육과 무관한 일시적 행사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들이 미술관교육을 통해 감성을 자극받을 기회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로, 청소년은 사춘기의 시기로 미술 감상 체험을 통해 자기감정을 확인하고 수시로 발상을 자극받으면서 자기 동기 부여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동기 부여의 기회는 학교미술교육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성공적인 자기 동기 부여의 기회는 좌절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술관교육에서는 획일적이고 지루한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섯째로, 미술관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 뿐 아닌 다른 학생들의 감정, 느낌 등을 교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미술관교육에서는 학교 미술교육보다 경쟁이 적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과중심의 입시위주로 이기적인 풍토가 만연한 경쟁구도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다른 학생들의 감성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의 감성발달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협동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VI. 결 론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한 미술관교육의 문제점과 청소년 감성발달의 과제를 고찰해 보았다. 이에 선행하여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 등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으며, 청소년과 감성교육의 이해를 위해 감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은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함양을 소홀히 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단으로 인해 문화의 결핍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인다. 이 시기의 교육은 이들이 올바른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며, 주지적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소로서의 감성발달과 관련이 깊은 미술관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정신적, 병리적 현상을 위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청소년들이 미술관교육을 통해 미적 능력을 갖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학교 미술교육에서 미술수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미술관교육은 학교 미술교육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미술의 이해 및 감상과 표현 영역 모두를 보완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술관 교육은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넓은 의미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미적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은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미술관의 부재가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담당자의 역할과 위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과,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 시기적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의 편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심각한 편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인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미술관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늘 그치는 일이 많아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단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다. 아동과 성인과 청소년이 모두 대상이 되어 구성된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의 독자성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의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가 아닌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담당자의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미술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부서 및 교육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대부분이지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교육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 미술교육의 학사일정이나

교과서 내용 들을 숙지하고 학교 교사들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미술관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한다.

셋째,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미술 이해, 미술 감상, 미술 표현, 미술 비평, 미술사 등 통합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내재되어 있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술관교육이 일신되어야 하겠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미술관 안내 방법을 개선하고 시청각자료와 교육 기자재와 같은 매체의 확충이 필요하다. 미술관에 비치되어 있는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은 능동적으로 미술관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술관에서는 작품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미술가 일일교사 초청, 지역 미술문화 공간 활용 등 미술관교육의 다양한 응용을 통해 수도권에만 치중되어 있는 미술관교육을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과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담당자와 청소년, 교사 모두 효과적으로 미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교육이 현장교육을 통한 다양한 시각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미적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건강함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이 시기의 감성은 청소년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불만과 갈등을 건설적인 힘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표출하는 기회를 미술관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IQ만을 위주로 행해졌던 교육이 사회적 성공여부를 결

정하는데 그다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 날,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적안목 육성과 조형능력의 신장, 창의성계발과 감성의 함양은 다양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폭 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 김형숙, 『미술교육과 소통』, 예경, 2001.
- 김황기, 『DBAE: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2.
- 노용오, 『청소년 심리』, 도서출판 구상, 2005.
- 노용오, 『청소년 문화론』, 도서출판 구상, 2005.
-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문화관광부, 1996 .
- 박우찬, 『전시, 이렇게 만든다』, 재원, 1998.
- 박휘락,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2003.
- 이규선 외, 『미술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4.
- 이영두, 『미술관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삶과 꿈, 1997.
- 이휘정, 『청소년의 행동 심리』, 도서출판 삼연, 1997.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86.
- 임승권, 『정신위생』, 양서원, 1988.
- 임정기 외,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 정옥분, 『발달심리학』, 학지사, 2004.
- 정우식, 『청소년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삼성출판사, 198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200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2007.
- 한명희, 『도덕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의 역할과 교육』, 교육학연구, 1979.
- 한상철 외, 『인간이해와 교육』, 중앙적성출판사, 1995.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도서출판 쉼마, 2005.

다니엘 지로디 앙리 뷔아페. 김혜경(역)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1997.

장 자크 루소. 민희식(역), 『에 밀』, 육문사, 1992.

< 논문 >

강수정, 「어린이 미술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현대미술관연구 제10집, 1999.

공경주,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김경식, 「감성지능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개념적 연구」, 한양여자대학교 학술지, 2004.

김순일, 「청소년의 이해와 생활지도」, 공주대학교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김지균, 「어린이 미술관 교육의 방법론」, 미술교육논총 제8집, 1999.

김혜숙, 「미술관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현대미술관연구 제5집, 국립현대미술관, 1994.

서인숙, 「박물관과 학교교육 연계의 방법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5집, 1999.

손지영, 「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실태 연구: 국, 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유근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교육」, 현대미술연구 제3집, 1992.

유혜련, 「효율적인 미술관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규선, 「정보화를 선도하는 미술교육의 연구 방향」, 미술교육논총 제5집, 1997.

이윤정, 「미술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조빈서, 「미술교육을 통한 감성지능(EQ)의 신장 방안」,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외제, 「중학생의 감성발달에 미술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최용환, 「미술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인터넷 사이트 >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경기도미술관 (<http://www.gma.or.kr>)

서울시립미술관 (<http://www.seoulmoa.seoul.go.kr>)

삼성미술관(Leeum) (<http://www.leeum.samsung.org>)

아트선재센터 (<http://www.artsonje.org>)

모란미술관 (<http://www.moranmuseum.org>)

영은미술관 (<http://www.youngeunmuseum.org>)

환기미술관 (<http://www.whankimuseum.org>)

뉴욕현대미술관 (<http://www.moma.org>)

런던국립미술관 (<http://www.nationalgallery.org.uk>)

퐁피두센터 (<http://www.cnac-gp.fr>)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Subject of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nsitivity of Juveniles

Kang, Mi Ju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anced nation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that is, fine art education by regarding the 21st century as the period of culture and art. Our country is making much efforts so as to realize the trial to try to get out of curriculum seeking after uniform and ideologically prejudiced competition centering around the main subjects in the meantime in fine art education by reflecting this period stream.

Education climate to be wrong in the meantime makes out juveniles wander in the confusion of sense of value and trouble, and it is furthering deviation and wrongdoing, and it resulted in the mass production of numerous juveniles of unadaptation such as juvenile violence which passes over danger level. Juvenile period is emotionally unstable immaturity period.

As the fine art education of this period may point to free expression of human being inside, it is connected with the issues of feeling and emotion directly, and it may be referred to as one of the methods to be able to develop sensitivity most efficiently. Thus, fine art educ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reaching point of sensitivity education simply but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cultivation

of basic ability for integrated personality, and we will have to see that there is basic goal in th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through sensitivity cultivation ultimately.

Like this,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that diverse juvenile issues come to the fore, fine art education to be able to purify extreme and uneasy juvenile psychology gently will have to offer more opportunities that juveniles may make sensitivity development by expanding the field of education to art gallery education which is not the education limited to only school.

But, as for the actuality of present art gallery education of our country, it is real situation that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on juveniles is very insufficient in comparison with adults and children. Thus, study on the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centering around juveniles is being requested keenly.

It is important to utilize art gallery as the field of important education which helps the understanding of fine art culture of juveniles by feeling vivid impression that exhibition works give at art gallery and offering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directly and to be able to contact intimately.

For the approach of art gallery to juveniles with popular image, positive attitude and efforts of art gallery side are required. Then, juvenile education program at art gallery has meaning for offering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experience cultural space to juveniles who will lead future culture through the stimulus for sensitivity from many-sidedness by contacting diverse art gallery culture such as aesthetic appreciative eye upbringing, originality development, extension of modeling ability, and emotion cultivation etc. And, art gallery education for juveniles and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which considers the interest and level of juveniles may have very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sensitivity of juveniles of

this period.

Thus,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points at issues of art gallery education of juveniles by examining the case of program of fine art education on juveniles which is being executed at many art galleries in our country now. And, this researcher tried to study the subject and alternative of sensitivity development of juveniles through art gallery education on the basis of suggestion point from it. For it, study of developmental feature for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feature and cognitive feature of juveniles is necessary. And, this researcher aimed at attaining the goal of fine art education which is aesthetic emotion cultivation and originality development and groping for the scheme for the activation of art gallery education, while examining the art gallery education for sensitivity development and the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concept of sensitivity and the understanding of juveniles and sensitivity education.

On the basis of above study, following conclusion came to be obtained as the scheme for the activation of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nsitivity of juveniles.

First, development of diverse programs to reflect the interest and desire of juveniles is urgent.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which is not the education program centering around children and adults but considers the independent nature and developmental feature of juveniles will be effective scheme for stimulating the aesthetic sensitivity of juveniles.

Second, professional manpower of persons in charge of education who plan and take charge of the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for juveniles will have to be secured, so that education program to be made at art gallery which is not school may be activated and may be recognized as professional domain.

Third, in developing the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study should be made, dealing with integrated domains such as fine art understanding, fine art appreciation, fine art expression, fine art criticism, and fine art history etc. without limiting to only one domain.

Fourth,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e programs, existing guidance method of art gallery should be improved, and expansion of media such as audiovisual material and tools and materials for education is necessary.

Fifth, self-program which gives life to local feature should be developed by connecting art gallery education to attach importance to only capital region with local culture through diverse application of art gallery education such as invitation of local artist as one-day teacher and application of local fine art culture space etc.

As above, for the activation of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that juveniles make sensitivity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program with affection and interest for fine art,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 of diverse programs, exhibition media, and effective education model to meet the stream of modern society will have to be present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 of program of art gallery education which is being performed in our country now, on the basis of the points at issues deduced from it and the subject for the sensitivity development of juveniles which is based on them, it is necessary that art gallery education is discussed and planned from deep and long-term viewpoint. And, this researcher expect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ffective art gallery program which is suitable for the real situation of our country through this.